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파이널 6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32%	20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4위	35%	19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3위	38%	37번	(독서 : 예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2위	51%	40번	(독서 : 과학) - 세부 추론
오답률 1위	71%	42번	(독서 : 과학)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문학] 현대소설 : 윤홍길, ‘완장’ / 고전소설 : 작자 미상, ‘홍보가’

[문법] 13번, 14번, 15번

[독서] 과학 지문 : 물질의 결합과 용해(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32%) 예측] : 독서-사회 20번 문항

<b>[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lt;보기&gt;의 상황 분석]</b>	
<b>[Killer-Point]</b>	<p>20. (나)를 바탕으로 할 때 &lt;보기&gt;의 사례가 ㉠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 &lt; 보기 &gt;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A는 B가 판매하고 있는 우산이 자신이 출원·등록한 관련 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B가 판매하는 우산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A가 출원·등록한 관련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p> </div> <p>① B의 우산 디자인이 A의 관련 디자인과 전혀 유사하지 않은 경우                  ② B의 우산이 A의 관련 디자인 등록 이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경우                  ③ B의 우산 디자인이 A의 관련 디자인 등록 이후에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경우                  ④ B의 우산 디자인이 A의 관련 디자인과는 유사하지만 기본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경우                  ⑤ B의 우산이 A의 기본 디자인 등록일과 관련 디자인 등록일 사이에 판매되기 시작한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b></p>
	<p>㉠에서 무엇을 말하고자하는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은 일종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으로 인해 ‘경쟁 제품’ 제조사가 피해를 입는다는 게 포인트이다.</p> <p>B가 우산 판매를 개시하기 전, 즉 B가 우산을 만들기 ‘전’에 A가 관련 디자인을 출원, 등록했다면, B는 자신의 우산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A가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해놓은 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p> <p>그러면 B는 디자인을 바꿔서 다른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B가 이미 우산을 판매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A가 관련 디자인을 출원, 등록해버리면, B는 이미 만들어놓은 우산을 디자인 때문에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B의 우산 판매 개시일은 A의 관련 디자인 등록일 전이어야 한다.</p>
	<p><b>[유사한 기출 사례] - 2019학년도 6월 모평</b></p> <p>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 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p> <p>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 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법규’라고 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p> <p>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공인 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p>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給付)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 법규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 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 25.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다.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셋째, 농지를 빌려 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①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 ②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 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이겠군.
- ③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 ④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 회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⑤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정답 : ③]

[오답률 4위(35%) 예측] : 독서-사회 19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19. (가)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비누 회사인 갑은 모년(某年) 8월에 비누 X를 출시하였다. 갑은 그 전에 이미 비누 X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했다. 비누 X를 출시하고 나서 두 달 후에 갑은 새로운 제품인 비누 Y를 출시하면서 그 디자인을 비누 X의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으로 하는 관련 디자인으로 출원하였다. 한편 또 다른 비누 회사인 을은 같은 해 11월에 비누 Y의 디자인을 모방한 디자인을 채용한 비누 Z를 출시하면서 비누 Z의 디자인을 출원하였다. 이에 같은 해 12월 1일 갑은 을의 비누 Z가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Killer-Point]

- ① Y의 디자인이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전에도 Z와 Y의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갑의 주장이 인정되겠군.
- ② 유사 디자인 제도에서는 Y의 디자인이 출원·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Z와 X의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갑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겠군.
- ③ 갑이 X의 디자인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Y의 디자인을 출원한 것이므로 Y의 디자인은 선출원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거부를 당했겠군.
- ④ 갑이 Y의 출시일 이후에 Y의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와 달리, 을이 Z의 출시일 이후에 Z의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에는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거부를 당하겠군.
- ⑤ 갑이 Y의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출원한 날짜가 을이 Z의 디자인을 출원한 날짜보다 앞서므로, Z와 Y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함이 입증되지 않아도 Z의 디자인은 선출원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거부를 당했겠군.

[정답 : ④]

얼핏 보기에는 시점을 따지는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이다. 지문에서는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의 차이점으로 '신규성 요건', '선출원주의' 두 가지를 제시했고, 이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관련 디자인은 디자인 출원 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신규성 요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따라서 갑이 Y 출시 이후에 Y를 관련 디자인으로 출원·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을의 비누 Z는 관련 디자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신규성 요건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의 비누 Z는 디자인 출원 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을이 Z의 출시일 이후에 Z의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이미 디자인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상태가 되므로,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거부를 당할 것이다.

[유사한 사례] - 2016년도 10월 학력평가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등의 표장(標章)을 말한다.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아 배타적 독점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장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의 요건'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명칭이란 사과, 소금 등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관용하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용 표장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며, 경쟁 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표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명 등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박'이나 '이'와 같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법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품의 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표장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통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그것은 이미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 업자들의 자유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막아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이 있는데, 이는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다. 국기나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은 공공 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2. 밑글과 <보기>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㉞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김 씨는 특허청에 산지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이 30년 전부터 이 상표로 상품을 생산해 왔다는 자료와 함께 출원 전에 지역 신문에 자신의 상품이 소개되었던 기사, 그리고 특허청의 등록 거절 소식이 전국 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근거 자료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심판 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였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                      ㉞                      )

- ① 청구인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청구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②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후에는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③ 청구인의 상품이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④ 청구인의 상표가 처음에는 관용하는 상표였지만 현재 기술적 상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⑤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전에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정답 : ⑤】

[오답률 3위(약 38%) 예측] : 독서-예술 37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b>[Killer-Point]</b>	<p><b>37. 윗글을 바탕으로 &lt;보기&gt;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보 기 &gt;</p> <p>바그너는 다음과 같이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을 해석하면서 수정.연주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첫째, 베토벤은 이 곡을 창작할 때 청각 장애로 인하여 음악의 음향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9번 교향곡의 예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 둘째, 베토벤은 당대의 악기 제조술의 한계로 금관 악기의 사용에 제약을 받았으나 바그너 시대에는 악기 제조술의 발전으로 금관 악기도 중요한 선율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악기군에도 그 역량에 맞는 역할을 주어야 한다. 셋째, 바그너 시대의 오케스트라에는 이전보다 현악 파트의 연주자가 늘어나 제9번 교향곡을 그대로 연주할 경우 관악과 현악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러므로 관악 파트의 연주자를 늘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p> </div> <p>① 복구적 유형은 금관 악기의 비중을 높이면 금관 악기에 그 역량에 맞는 역할을 맡기지 않았던 과거의 연주 관행이 왜곡된다고 보겠군.</p> <p>② 복구적 유형은 현악 파트의 연주자 수를 베토벤 당대의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관악과 현악의 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겠군.</p> <p>③ 전통적 유형은 바그너가 제9번 교향곡을 수정하여 연주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악보에 기록되지 못한 예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겠군.</p> <p>④ 전통적 유형은 바그너가 제9번 교향곡의 악보를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하는 대신 자신의 해석을 반영하여 연주하려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겠군.</p> <p>⑤ 현대적 유형은 금관 악기가 중요한 선율을 맡아 연주하도록 하는 것은 음악이 연주되는 시점의 음악 환경을 반영하여 제9번 교향곡을 해석한 사례일 수 있다고 보겠군.</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①]</b></p> <p>선지에는 늘 판단 지점이 있는데, 선지를 숙 읽는, 충분히 꼼꼼하게 읽지 않는 습관이 박힌 학생들은 1번 선지를 가볍게 넘어가고 다른 선지들 사이에서 고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정답 선지가 1번 선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하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문제에서 오히려 시간을 더 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평소에 선지 판단 과정에서 '한 번에 정확히' 판단하려는 태도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p> <p>복구적 유형은 당대의 연주 형태를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당대의 연주 형태를 벗어나 금관 악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당시 금관 악기의 수준에 맞게 역할을 맡겼던 당대의 연주 관행이 왜곡된다고 생각해서이지 당시 금관 악기의 역량에 부합하지 않는 역할을 맡겼던 당대의 연주 관행이 왜곡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p>
<b>[유사한 사례] - 2018년도 7월 학력평가</b>	
<p>예술 작품을 현실의 모방이나 재현으로 보며 감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관점과 달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 자체를 진리가 드러나는 통로로 보았다. 하이데거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자로, 그러한 존재자를 존재자답게 만드는 것을 존재로 규정하고, 예술 작품의 진리는 존재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다. 특히 하이데거는 존재자 중 인간이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을 '도구'로 규정했는데, 예술 작품은 단순히 도구를 정확히 모사해서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예술 작품은 도구의 존재를 드러냄에 따라 존재자의 비은폐성을 이끌어 내어, 존재자의 본질을 열어 보여 주는 것이다.</p> <p>하이데거는 이러한 미학적 관점을 고흐의 「구두」라는 작품을 통해 설명한다. 고흐의 작품 속에서 구두라는 존</p>	



재자의 존재는, 구두 자체의 외형이나 용도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두가 딛고 있는 터전, 그리고 그 구두가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삶 전체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고흐의 작품 속 구두의 '존재'가 그것을 신고 다녔을 어느 농부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드러내게 된다고 생각했으며, 구두에 담긴 농부의 고단하면서도 소박하고 경건한 삶 전체가 구두라는 존재자에 은폐되었던 '진리'라고 여긴 것이다. 이와 같이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 속 도구의 존재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의 본질인 진리가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작품 속 도구가 실제와 얼마나 똑같은지 또는 그것을 예술가가 어떤 의도로 창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미술사학자 샤피로는 하이데거가 아무런 검증 없이 고흐의 작품 속 구두를 농부의 것이라 단정 지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주변 화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흐는 중고 시장에서 산 구두를 신고 맑은 날이든 굵은 날이든 주변의 언덕을 가로질러 외곽 도로를 누볐고, 그 구두가 완전히 일그러진 다음에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 따라서 샤피로는 그림 속 구두가 고흐 자신이 신었던 구두를 모델로 삼아 창작된 것이라 보았다. 이처럼 샤피로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림 속 구두의 소유주를 찾아 특정 주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는 이러한 샤피로의 주장이 예술 작품을 대상의 모방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데리다가 볼 때 하이데거에게 중요했던 것은 구두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두에 은폐되어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데리다는 두 사람의 해석에서 유사성을 읽어 낸다. 두 사람 모두 그림 속 구두를 '한 켤레'로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림 속 구두는 오른쪽 것이 훨씬 커 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볼수록 신고 다닐 수 있는 구두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왜 거기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데리다는 두 사람 모두가 구두를 '한 켤레'로 규정함으로써, 구두에 대한 그 밖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데리다는 예술 작품의 진리는 작품 속에 결코 하나로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고흐의 작품이 하이데거를 만나 하나의 진리를 열어 주듯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진리를 열어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데리다는 하이데거처럼 근원적 진리로서의 회귀를 원하지 않는다. 데리다는 예술 작품이 열어 주는 다양한 해석들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이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생성해 내는 예술 작품의 끊임없는 미적 창조력, 바로 거기에 예술 작품의 진리가 놓여 있다고 본 것이다.

## 20.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에 나타난 데리다의 예술에 대한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데리다는 언어의 의미가 다른 개념과의 대비, 즉 교차 속에서 생성된다고 생각했다. 한 언어 체계가 큰 숲이고 각각의 단어의 의미가 나무라면, 단어의 의미는 서로 다른 모양의 나무를 비교함으로써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의미 또한 수많은 대안적 의미 속에서 순간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의미의 차이로 인해 언어의 고정 불변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① 언어에서 고정 불변한 의미를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고 본 것처럼 예술 작품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 어렵다고 보았겠군.
- ② 언어의 의미가 다른 개념과의 대비를 통해 생성되듯이 예술 작품도 다른 작품과의 대비를 통해 진리가 드러난다고 보았겠군.
- ③ 언어 체계 속에서 단어의 의미가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술가들의 관계 속에서 예술 작품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겠군.
- ④ 언어의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의 차이로 인해 드러나는 것처럼 다양한 시각을 통해 예술 작품의 진리는 확정된다고 보았겠군.
- ⑤ 언어의 의미가 수많은 대안적 의미 속에서 순간적으로 선택된 것처럼 예술 작품의 진리 또한 예술 작품 속에 반영된 다양한 현실을 선택적으로 모사한다고 보았겠군.

[정답 : ①]

## [오답률 2위(약 51%) 예측] : 독서-과학 40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세부 추론]	
[Killer-Point]	<p>40. ㉠,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메테인 분자는 ㉠의 차이가 0.5보다 작은 두 원자가 결합한 것이다.          ② ㉡은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절댓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③ 분자 모양이 대칭적이면 공유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는 원자들의 결합도 ㉡이 될 수 있다.          ④ 어떤 분자가 ㉡을 통해 결합한 두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분자가 꼭 극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⑤ 어떤 화합물을 이루는 두 원자의 ㉠의 차이가 없다면 두 원자는 전자쌍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이 불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④]</p> <p>㉡ '극성 공유 결합'을 보고 물 분자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물 분자는 분자가 극성을 띠게 되는 공유 결합이다. 이정도 내용은 기억에 있었을 것이고, 기억에만 의존해서 선지를 판단했다면 4번 선지를 건너뛰었을 가능성이 높다.</p> <p>그러니까 비록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지문 내용을 확인하고 선지를 판단해주는 것이 좋다. 어차피 이미 기억에 충분히 남아 있는 내용을 지문에서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지문에서 확실히 근거를 찾아서 판단했다면 5번 선지를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니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도 있다.</p> <p>돌아가서 지문을 확인했다면 ㉡ 뒤에 나온 '메테인 분자'에 대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메테인 분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지만 그 모양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극성이 상쇄되어 분자가 극성을 띠지 않는다.</p>
[유사한 사례] - 2005년도 3월 학평	
<p>H<sub>2</sub>O.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것. 물은 이처럼 간단한 화합물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화합물이기도 하다.</p> <p>우선, 물은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끓는점이 높다. 일반적으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지니며, 그들의 끓는점은 원자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이는 산소족에 속하는 원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산소, 황, 셀레늄, 텔루르 등의 순으로 끓는점이 높아진다. 이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수소와 결합하여 물, 황화수소, 셀레늄화수소, 텔루르화수소 등의 수소화합물을 이루며, 이들 화합물의 끓는점은 대체로 구성 원소의 원자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그런데 유독 물의 경우에는 끓는점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황의 수소화합물인 황화수소(H<sub>2</sub>S)의 끓는점이 -59.6°C인데 비해 산소족 원소들 중에서 원자량이 가장 적은 산소의 수소화합물인 물은 끓는점이 100°C나 되는 것이다. 단순히 원칙대로만 따지면, 물의 끓는점은 -80°C정도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물은 다른 물질들에 비해 1°C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 즉 비열이 대단히 높다. 어떤 물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다는 말은, 온도가 내려갈 때 그만큼 많은 열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의미도 된다.</p> <p>이렇게 물의 끓는점이 높고 비열이 큰 이유는 물분자들 사이의 강한 결합력 때문이다. 물의 단독 분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분자들은 강한 결합력을 바탕으로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 데 많은 열이 필요하며 쉽게 기화되지 않는 것이다.</p> <p>또한 물은 가장 뛰어난 용매이기도 하다. 물질들을 물속에 넣으면 그 물질의 원자나 분자 사이에 작용하던 힘이 매우 약해져서 쉽게 녹아 버린다. 물이 이렇게 뛰어난 용해력을 갖는 것은 물분자가 자기들끼리 결합하는 힘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의 원자나 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역시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p>	

물이 지닌 이러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분자가 '극성 공유 결합'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의 두 핵은 그 사이에 있는 전자들을 동등하게 공유하지만, 극성 공유 결합을 한 분자의 경우에는 전자들이 한쪽의 핵에 더 강하게 끌리게 된다. 이 때문에 분자의 한쪽 끝은 약간의 양전하를 띠게 되고 다른 쪽 끝은 약간의 음전하를 띠게 된다. 양전하를 띠는 부분과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쉽게 결합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결합 방식 덕분에, 물분자들끼리의 결합력이 다른 물질의 분자들에 비해 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과도 쉽게 극성 공유 결합을 이룸으로써 그 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의 이러한 성질은 생명 현상에 매우 유익한 결과들을 초래한다. 물분자들의 결합력 덕분에 물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와 고체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물을 생명 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 생물체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하지 않다. 즉 항상성이 크다. 그 덕분에 대부분이 물로 채워진 생물체와 지구는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생물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신진대사 역시 물의 강한 용해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 39. 밑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것은 물분자들의 강한 결합력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면 되겠군.
- ② 화합물의 성질은 구성 원소들의 특징뿐 아니라 결합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 ③ 물이 다른 산소족 원소들의 수소화합물과 같은 성질을 가졌다면, 지구상에 생물체가 존재하기 어려웠을 거야.
- ④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을 정도로 물의 표면장력이 큰 근본적인 이유도 물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크기 때문일 거야.
- ⑤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전달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구나.

[정답 : ①]

[오답률 1위(약 71%) 예측] : 독서-과학 42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2.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실험 물질의 특성

A는 수소 원자와 a, B는 수소 원자와 b, X는 산소 원자와 x가 결합된 화합물이다. a와 b의 전기 음성도는 모두 수소보다는 높고 산소보다는 낮으며, 원자 x의 전기 음성도는 산소보다 낮고 x와 산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1.7보다 작다.

○ 가상의 실험 결과

물질 A, B가 액체 X에 용해되는지 알아보는 실험과, 좁은 유리관을 액체 X를 담은 용기에 수직으로 넣는 실험을 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 1] A는 X에 녹았다.

[결과 2] B는 X에 녹지 않았다.

[결과 3] 액체 X는 관 속의 높이가 관 밖의 높이보다 낮아졌고 표면이 불룩해졌다.

○ 학생의 추론

용해의 조건이나 부착력과 응집력의 관계에 따라 판단하면, [가]고 추론할 수 있어. (단, 분자 간 인력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극성을 띤 분자들 간에는 항상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한다고 가정함.)

[Killer-Point]

- ① A가 X에 용해될 때 A와 X 간의 인력은 X와 X 간의 인력보다 크게 작용한다.
- ② A는 극성을 띤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a와 수소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 ③ B는 극성을 띤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b와 수소는 이온 결합을 하지 않는다.
- ④ b의 전기 음성도가 a의 전기 음성도보다 크다면, B의 분자는 극성이 상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⑤ X에 유리관을 수직으로 넣으면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크게 작용하므로 x의 전기 음성도는 규소의 전기 음성도보다 작다.

[정답 : 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려해야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결합의 종류 3가지, 용매, 용질, 용해, 전기 음성도, 전하 차이, 응집력과 부착력 모든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주는 정보들부터 천천히 정리해보자. 먼저 '실험 물질의 특성' 부분에서는 '전기 음성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text{전기 음성도} : [\text{수소} < a, b < \text{산소}] / x(?)$$

x의 전기 음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까지는 모른다. 수소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일단 x와 산소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보다 작다고 했으니, 산소와 x는 극성 공유 결합 상태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겠다.

다음으로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자. 여기서부터가 어렵다. '전기 음성도'의 순서가 완벽하게 잡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래와 같다.

$$\text{전기 음성도} : x < \text{규소} < \text{수소} < a, b < \text{산소}$$

'규소'가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유리관'을 사용한 실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x가 규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것은, '응집력'과 '부착력'의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다.

[결과 3]에서 관 속의 액체 표면이 볼록해졌다는 것은 산소와 x가 결합한 X가 유리관 안에서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문에 나온 '물'의 사례와 반대로 생각해보면 된다.)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X와 X의 분자 간 인력이 X와 이산화규소의 분자 간 인력보다 크다는 뜻이다. 4문단에서 물 분자의 산소보다 이산화규소의 규소가 더 강한 전하를 띠는 것은 규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물 분자의 수소는 이산화규소의 산소에 더 잘 결합(더 강한 인력의 작용)한다고 했다.

따라서 분자 X와 X 간의 인력이 X와 이산화규소 분자 간의 인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X의 양전하 부분과 X의 음전하 부분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 X의 양전하 부분과 이산화규소의 산소(음전하) 간에 작용하는 인력 혹은 X의 음전하 부분과 이산화규소의 규소(양전하) 간에 작용하는 인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결국 X의 음전하(양전하) 부분이 이산화규소의 산소(규소)보다 더 강한 전하를 띠고 있음을 뜻한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전하가 더 강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를 산소와 x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x와 산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규소와 산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의 전기 음성도가 규소보다도 작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A가 X에 용해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실험 물질의 특성' 부분에서 본 것처럼 X는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용매이다. 그리고 극성 물질인 용질만 극성 물질인 용매에 의해 용해될 수 있으므로 A 역시 극성 물질임을 알 수 있다.

이때 A가 X에 용해되려면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는 충족되어야 한다.

- (1) 용매(X)와 용질(A) 간의 인력 > 용매(X) 분자 간의 인력
- (2) 용매(X)와 용질(A) 간의 인력 > 용질(A) 입자 간의 인력

여기서 A(수소와 a)와 X(x와 산소) 간의 인력은, X와 X 간의 인력보다 클 수 없다. 즉 (1)의 경우는 성립할 수 없다. 앞에서 본 내용처럼 인력이 강해지려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야 하는데, A와 X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해도 산소와 x 사이의 거리보다 멀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 음성도 :  $x < \text{규소} < \text{수소} < a, b < \text{산소}$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았어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 [안은 문장]

안은 문장 : 안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안긴 문장 :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으로, ‘절’이라고도 한다.

- (1) 명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의 역할)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으)ㅁ’	나는 승모가 모범생임을 안다. 우리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음이 확인되었다.
② 명사형 어미 ‘-기’	우리는 승모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가 너무 어렵다.

- (2) 부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표지	예
① 부사형 어미 ‘-게’	엄마가 아이를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② 부사형 어미 ‘-도록’	태현이는 다리가 붓도록 걸었다.
③ 부사형 어미 ‘-아서/어서’	나는 영지가 잡아서 하루 더 머물렀다.
④ 부사형 어미 ‘-듯이’	나그네가 달이 구름에 가듯이 간다.
⑤ 부사형 어미 ‘-ㄴ수록’	해가 갈수록 경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⑥ 부사 파생 접미사 ‘-이’	그 사람이 말도 없이 갔다.

- (3) 관형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

표지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은</u>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는</u>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을</u>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던</u> 사람이 없다.

[참고]

관계 관형절	개념 : 관형절의 문장 성분 중 주절에 있는 동일 요소가 생략되는 관형절
	<p>㉠ 학교에 가는 철수를 보았다.</p> <p>→ 관형절 '(철수가) 학교에 가는'에서 주어 생략 철수가 쓴 글을 읽었다.</p> <p>→ 관형절 '철수가 (글을) 쓴'에서 목적어 생략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다.</p> <p>→ 관형절 '파도의 자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에서 부사어 생략</p>
동격 관형절	개념 : 관형절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관형절 / 생략되는 문장 성분이 없음
	<p>㉡ 나는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다.</p> <p>→ 관형절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과 '사실'이 동일한 의미</p>

(4) 서술절을 안은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절 표시가 없음.)

㉢ 코끼리가 코가 길다.

서울은 인구가 많다.

(5)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화자의 생각, 느낌,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옮긴 문장

표지	예
① 직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라고', '하고'	나는 "날씨가 너무 더워!"라고 소리쳤다. 폭풍으로 나무가 "쿵!"하고 쓰러졌다.
② 간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고'	선생님이 나에게 저 가방에는 무엇이 있냐고 물었다. 철수가 영희에게 숙제를 보여달라고 했다.

[참고 자료][문장 출제 요소 정리]

	절 표시(전성 어미)	출제 요소
명사절	-음, -기	<p>역할 : 주어, 목적어, 부사어(격 조사로 판단), 보어(보기 힘듦) 관형어(순간적인 착각이나 함정 주의)</p> <p>〈보기〉 → 〈판단〉 → 〈선택지〉 순서대로</p> <p>예시) 〈보기〉 : (승모가 거짓말을 했음)의 밝혀졌다. → (판단) 명사절이 주어 역할 → (선택지 출제) ① 주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p> <p>나는 (너희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 → ②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p>

		<p>승모는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 → ③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p> <p>그는 (비가 오기) 전에 떠났다. →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기 전) → ④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함정 주의)  <b>[보통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선택지를 보면 관형절을 떠올리기 마련, 명사절도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만약 번거롭다면 ‘-기 전’을 외워두고 명사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기억해두자.]</b></p>
관형절	-은, -는, -던, -ㄹ	<p>1)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3) 생략 여부 : 안긴 문장의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생략                  - 안긴 문장의 한 성분이 생략되는 관형절 : 관계 관형절(중요)                  - 안긴 문장의 한 성분이 생략되지 않는 관형절 : 동격 관형절(잊지 말기)</p> <p style="text-align: center;"><b>&lt;보기&gt; → &lt;판단&gt; → &lt;선택지&gt; 순서대로</b></p> <p>예시) &lt;보기&gt; : (예쁜) 꽃이 피었다. → (판단) ‘-ㄴ’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꽃을 집어넣는다. / 꽃이 예쁘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것. → &lt;선택지 출제&gt; ①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그는 (좁은) 길을 혼자 걸었다. → ‘-은’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길을 집어넣는다. / 길이 좁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것. → ②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p> <p>여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다. → ‘-는’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음식’을 집어넣는다. /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목적어가 생략된 것. → ③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p> <p>(승모가 밥을 먹은) 식당은 학원 앞에 있다. → ‘-은’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식당을 집어넣는다. / 승모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부사어가 생략된 것. → ④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p> <p>우리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동격 관형절 / 생략X)</p>
부사절	-게, -도록, -듯이, -니까 -이(부사 파생 접미사)(없이, 같이, 달리)	<p>1)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이(부사 파생 접미사)  <b>없이, 같이, 달리처럼 ‘-이’가 결합되어 부사가 된 단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b></p> <p>(사람들이 앉게) 어서 일어나자 → 부사절                  승모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부사절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 원래 ‘소리가 없다’ 즉 절이다. ‘소리도 없이’가 ‘내린다’라는 용언을 꾸민다. 즉 부사절이다. <b>‘없이’는 부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b></p> <p>1)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앞절이 뒷절 사이로 들어가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로 보기도 한다.                  - 비가 와서 차가 막힌다.(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p>



		<p>- 차가 (비가 와서) 막힌다.(‘비가 오다’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p> <p>2) 인용절 역시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p> <p>- 승모는 (날씨가 참으로 덥다고) 되뇌었다.(인용절 / 부사어의 역할)</p> <p>이처럼 부사절은 범위가 넓다. 따라서 절이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라는 판단만 해주면 된다.</p>
서술절	X(문장 형태에 익숙해지기)	<p>1)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p> <p>2) 안긴 문장에 부사어가 있느냐</p> <p>3) 보어가 있는 홑문장과 구분할 수 있느냐</p> <p><b>이 집은 (베란다가 넓다.)</b>          이 집은(문장 전체 주어) (베란다가(주어) 넓다.(서술어))(문장 전체 서술어)          → 서술절 /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p> <p><b>친구는 (얼굴이 많이 변했다).</b>          친구는(문장 전체 주어) (얼굴이(주어) 많이 변했다.(서술어))(문장 전체 서술어)          → 서술절 /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 / 안긴 문장 안에 부사어가 있느냐(많이)</p> <p><b>승모는 돼지가 아니다.(되다, 아니다 앞 이/가는 보어 / 홑문장)</b></p> <p><b>이번 실패는 어느 한 사람의 탓이 아니다.</b>          (되다, 아니다 앞 이/가는 보어 / 홑문장)</p>
인용절	라고(직접 인용), 고(간접 인용)	<p>직접 ⇔ 간접 바꿔보기</p> <p>승모는 밥을 잘 먹었다고 말했다.(간접 인용 / 부사어의 역할)</p>

[선택지 해설]

13. ④

㉠	우리는 [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명사절(목적어 역할)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안 왔다. 부사절(‘없이’는 부사 / 부사가 안긴 문장의 서술어 역할)
㉢	사람들은 [장마철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렸다. 명사절(목적어 역할)
㉣	동생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풀었다. 관형절(주어 생략)
㉤	그는 [흰옷에 진] 얼룩을 한참 동안이나 문질렀다. 관형절(주어 생략)

**정답해설** 답은 ④야. ㉔의 ‘동생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풀었다’에서 안긴문장은 ‘아주 어려운’이라는 관형절이야. ‘아주 어려운’은 본래 ‘수학 문제가 아주 어렵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의 한 성분인 ‘수학 문제’와 같은 부분인 ‘수학 문제’가 생략되고 종결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으로 바뀐 후 안은문장에 안겼어. 그리고는 뒤에 오는 체언 구 ‘수학 문제’를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즉 ㉔에는 ‘수학 문제’라는 주어가 생략된 채 안긴 관형절이 있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㉑의 ‘우리는 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에서 안긴문장은 ‘시험이 빨리 끝나기’라는 명사절이야. ‘시험이 빨리 끝나기’는 본래 ‘시험이 빨리 끝나다’라는 문장에서 종결 어미가 명사형 종결 어미 ‘-(으)ㄴ’으로 바뀐 후 안은문장에 안겼어. 그리고 뒤에 목적격조사 ‘를’이 붙어서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므로 선지에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부분은 틀렸어.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어.

②를 살펴보자. ㉒의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안 왔다.’에서 안긴문장은 ‘연락도 없이’라는 부사절이야. ‘연락도 없이’는 본래 ‘연락도 없다’라는 문장으로 종결어미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로 바뀌어 안겼어. 이렇게 안긴 부사절은 서술어부인 ‘안 왔다’를 꾸미고 있어. 그러므로 선지에서 ‘부사어가 생략되었다’는 부분은 틀렸어. 안긴 부사절은 아무 문장 성분도 생략되지 않은 채로 부사 파생 접미사만 붙어서 안겼거든.

③을 살펴보자. ㉓의 ‘사람들은 장마철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렸다.’에서 안긴문장은 ‘장마철이 빨리 지나가기’라는 명사절이야. ‘장마철이 빨리 지나가기’는 본래 ‘장마철이 빨리 지나가다’에서 종결 어미가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으로 바뀐 후 안은문장에 안겼어. 그리고 뒤에 보조사 ‘만’이 붙었지. 이때 보조사 ‘만’을 목적격조사 ‘를’로 바꾸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우리는 해당 명사절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어. 즉 선지에서 안긴문장이 부사절이라는 것은 틀렸어.

⑤를 살펴보자. ㉕의 ‘그는 흰옷에 진 얼룩을 한참 동안이나 문질렀다.’에서 안긴문장은 ‘흰옷에 진’이라는 관형절이야. ‘흰옷에 진’은 본래 ‘얼룩이 흰옷에 지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의 같은 부분인 주어 ‘얼룩’이 생략되고, 종결어미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으로 바뀐 후 안겼어. 그렇게 안겨서는 ‘얼룩’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지. 그러므로 선지에서 생략된 성분이 없다는 부분은 틀렸어.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음운의 변동] - 교체(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동화의 유형	
순행 동화	앞의 음운의 뒤의 음운을 바꾸는 동화
역행 동화	뒤의 음운이 앞의 음운을 바꾸는 동화
조음 방법 동화	바뀌는 음운의 조음 방법이 바뀌는 동화로 비음화, 유음화 등이 있다.
조음 위치 동화	바뀌는 음운의 조음 위치가 바뀌는 동화로 양순음화, 연구개음화 등이 있다.

**(1) 유음화(교체)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비음	환경	결과	예시
ㄴ	ㄹ 앞이나 뒤	[ㄹ]	신라 → [실라], 물난리 → [물랄리], 뚫는 → [뚫는 → 뚫른]

**(2) 된소리되기(교체)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된소리되기는 매우 생산적인 음운 변동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조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ㄱ, ㄷ, ㅂ, ㅅ, ㅈ → [ㄲ, ㄸ, ㅃ, ㅆ, ㅉ] / ①, ②, ③ ① ㄱ, ㄷ, ㅂ 뒤 예) 국밥 → [국뺨], 꽃병 → [꽃뺨], 값도 → [갑도]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ㄱ, ㄷ, ㅂ’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② 어간의 끝 자음 ㄴ, ㄹ 뒤

예) (동생)을 안고 → [안꼬], (신발)을 신고 → [신꼬], (의자)에 앉고 → [안꼬]

-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의 ‘ㄴ, ㄹ’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체언의 끝 자음 ‘ㄴ, ㄹ’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 신고(申告)[신고]
- 피동, 사동 접사 ‘-기’의 첫 자음은 이 변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안기대[안기대]: 안 + -기 + -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예) 할 것을 → [할꺼슬], 갈 데가 → [갈떼가], 만날 사람 → [만날싸람]

-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를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ㄹ걸’, ‘-ㄹ밖에’, ‘-ㄹ게’, ‘-ㄹ수록’, ‘-ㄹ세라’, ‘-ㄹ지라도’ 등은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형태로, 발음상으로 된소리 되기를 겪는다.

④ ㄷ, ㅅ, ㅈ → [ㄸ, ㅆ, ㅉ]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

예) 갈등 → [갈똥], 말살 → [말쌀], 열정 → [열똥]

(3) 구개음화 : 받침 ‘ㄷ, ㅌ(ㄸ)’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동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으로, 어떤 음이 인접해 있는 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다. 모음 ‘ㅣ’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구개음(경구개음)인데, ‘ㅣ’와 거리가 먼 ‘ㄷ, ㅌ’이 ‘ㅣ’와 거리가 가까운 ‘ㅈ, ㅊ’으로 발음되어 ‘ㅣ’와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바뀐 것이므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현상이다.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ㄷ, 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ㅈ, ㅊ]	굳이 → [구지], 밭이 → [바치],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참고 1] 구개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둘 다 바뀌는 것이다.

[참고 2] 구개음화는 ① 통시적 변화 ② 자음 축약과의 비교(달히다[다치다] vs 꽃히다[꼬치다])까지 알아두면 좋다.

[선택지 해설]

㉠	같이	같이 → [가치] 구개음화
㉡	국밥	국밥 → [국뻬] 된소리되기
㉢	달나라	달나라 → [달라라] 유음화

14. ㉠

정답해설 답은 ㉠야. 먼저 ㉠의 ‘같이’에서는 앞 음절 종성의 윗잇몸소리이자 파열음인 ‘ㄷ’이 뒤 음절의 ‘ㅣ모음’을 만나 센입천장소 리이자 파찰음인 ‘ㅈ’으로 교체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가치]가 돼. 이때 뒤 음절은 ‘같이’라는 단어에서 두 번째 음절에 해당해. 다음으로 ㉡은 안울림소리인 ‘ㄱ’과 ‘ㅂ’이 만나 뒤 음절 초성 ‘ㅂ’이 된소리인 ‘ㅃ’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정리하면 ㉠은 두 번째 음절의 모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 하지만, ㉡은 자음과 자음이 만나 일어나는 음운의 동화로 두 번째 음절의 모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이 아니야.

[오답풀이]

- ①을 살펴보자. ㉠에서는 구개음화가 한 번, ㉡에서는 된소리되기가 한 번, ㉢에서는 유음화가 한 번 일어나. 그러므로 ㉠ ~ ㉢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 횟수는 같아.
- ②를 살펴보자. ㉠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는 윗잇몸소리이자 파열음 ‘ㄷ’이 센입천장소리이자 파찰음인 ‘ㄷ’으로 교체되는 구개음화가, ㉡에서는 예사소리 ‘ㅂ’이 된소리 ‘ㅃ’이 되는 교체가, ㉢에서는 윗잇몸소리이자 비음인 ‘ㄴ’이 윗잇몸소리이자 유음인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그러므로 ㉠~㉢에서는 모두 교체라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
- ③을 살펴보자. ㉠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 음운의 개수는 ‘ㄱ, ㄷ, ㄷ, ㄴ’ 4개이고, 구개음화가 일어난 뒤에는 ‘ㄱ, ㄷ, ㄷ, ㄴ’로 똑같이 4개야. ㉡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기 전 음운의 개수는 ‘ㄱ, ㄷ, ㄱ, ㅂ, ㄷ, ㅂ’ 6개이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뒤에는 ‘ㄱ, ㄷ, ㄱ, ㅃ, ㄷ, ㅃ’으로 똑같이 6개야. ㉢에서 유음화가 일어나기 전 음운의 개수는 ‘ㄷ, ㄷ, ㄹ, ㄷ, ㄹ, ㄷ’로 7개이고, 유음화가 일어난 뒤에는 ‘ㄷ, ㄷ, ㄹ, ㄹ, ㄷ, ㄹ, ㄷ’로 똑같이 7개야. 그러므로 ㉠ ~ ㉢ 모두 음운의 변동 이후에도 음운 개수에 변화가 없어.
- ⑤를 살펴보자. 먼저 ㉠의 ‘같이’에서는 앞 음절 종성의 윗잇몸소리이자 파열음인 ‘ㄷ’이 뒤 음절의 ‘ㅣ모음’을 만나 센입천장소리이자 파찰음인 ‘ㄷ’으로 교체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가치]가 돼. 이때 ‘ㄷ’이 ‘ㄷ’으로 바뀔 때는 조음 위치가 ‘윗잇몸소리’에서 ‘센입천장소리’로, 조음 방법이 ‘파열음’이 ‘파찰음’으로 조음 위치와 방법이 모두 바뀌어. 이때 ‘ㄷ’이 ‘ㄷ’로 바뀌는 이유는 인접한 모음인 ‘ㅣ’의 영향이야. ‘ㅣ’의 위치가 ‘ㄷ’와 가깝거든. 그래서 ‘ㅣ’와 본래 멀리 있던 자음 ‘ㄷ’이 모음 ‘ㅣ’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어 ‘ㅣ’와 가까운 자음인 ‘ㄷ’로 바뀌는 거야. 다음으로 ㉡의 ‘달나라’에서는 ‘달 + 나라’에서 뒤 음절의 초성 윗잇몸소리이자 비음 ‘ㄴ’이 앞 음절 종성 윗잇몸소리이자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똑같은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서 [달라라]가 돼. 이때 ‘ㄴ’이 ‘ㄹ’로 바뀌면서는 조음 방법만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어.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중세국어의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의미	가부(可否) 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 의문사 없음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 의문사 있음 )
실현 방법	① ‘-야’ 계통의 어미 : ‘-녀’, ‘-(잇)가’ ② 의문 보조사 : ‘가’	① ‘-오’ 계통의 어미 : ‘-뇨’, ‘-(잇)고’ ② 의문 보조사 : ‘고’
예	어미 : 공덕(功德)이 하녀 저그녀(공덕이 많으나 적으나) 보조사 : 이 썩리 너희 종간(이 딸이 너희 종이나)	어미 : 이제 어디 잇뇨(이제 어디 있느냐) 보조사 : 이 엇던 광명(光明)고(이 어떤 광명이냐)

[참고]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

- 중세 국어에서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은 1인칭이나 3인칭의 경우와 달리 의문형 어미 ‘-냐’ 또는 ‘-냐따(-냐다)’가 쓰여 형태적으로 구별되었다. ㉠ 네 엇데 안다 (네가 어찌 아느냐?) / 네 내 풀 드를따 (너는 내 말을 들었느냐?)

2. 중세의 접속조사

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입과 눈과
과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 뒤	나모와, 들와

[참고] 중세의 접속조사는 마지막 체언 뒤에도 붙는다.

3. 중세의 격조사

(1) 주격 조사

형태	환경	예시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사름 + 이
ㅣ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터 + ㅣ
∅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불휘 + ∅

(2) 관형격조사

형태	환경	예시
ㅅ	높임 유정 명사, 무정 명사 뒤	부터 + ㅅ 나라 + ㅅ
익	평칭의 유정 명사 뒤	물 + 익
의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崔九(최구) + 의

(3) 부사격조사

형태	환경	예시
애/에/예	선행 체언의 모음이 양성 / 음성 / ㅣ	바를 + 애 / 도솔천 + 예 서리 + 예 / 빅 + 예
익/의	특정 체언에만 연결(특이처격어)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밤 + 익 / 곁 + 의
와/과	말음이 'ㄹ', '모음'이면 '와', 말음이 자음이면 '과'	달 + 와 / 짜흠 + 과

4. 'ㅎ' 종성 체언

①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체언의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 존재했다.

예 '돌(돌), 갈(갈), 가솔(가을), 겨울(겨울), 열(열), 하늘(하늘),  
나라(나라), 앓(앓), 술(수), 앓(안)' 등

② 단독형이나 관형격 조사 'ㅅ' 앞 → 예 나라 / 나랏

- 'ㅎ' 종성 체언이 단독형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 나타날 때 'ㅎ' 없이 쓰인다.

③ 나라ㅎ + 이(주격 조사) → 예 나라히

- 'ㅎ' 종성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나타날 때 종성 'ㅎ'이 연음되어 나타난다.

④ 나라ㅎ + 과(부사격 조사) → 예 나라과

- 'ㅎ' 종성 체언이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축약되어 'ㅋ, ㅌ'으로 나타난다.

5. 중세의 상대 높임 :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나 어말 어미 사용

현대 국어		중세 국어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	ㅎ쇼셔체	평서형 : -이-	ㅎ느이다
예사 높임	하오체		의문형 : -잇-	ㅎ느니잇가
명령형	하계체		명령형 : -쇼셔	아르쇼셔
아주 낮춤	해라체	ㅎ아셔체	평서형 : -강-	ㅎ넝다
두루 높임	해요체		의문형 : -스-	ㅎ느닛가
명령형	해체 (반말)		명령형 : -어써	슬바써
- 현대국어는 '중결 어미'로 상대 높임 표현		ㅎ라체	평서형	ㅎ느단
			의문형	ㅎ나넝/ㅎ나눈
			명령형	글바쓰라

**[선택지 해설]**

## 15. ㉔

**정답해설** 답은 ㉔야. 먼저 ㉔의 ‘거부빅’을 분석하면 ‘거북 + 의’이며 이는 현대어로 ‘거북의’로 관형격조사 ‘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때 중세의 관형격조사 ‘의’가 붙어있는 체언 ‘거북’은 평칭의 유정 명사에 해당해. 다음으로 ㉔의 ‘바빅’을 분석하면 ‘밤 + 익’이며 이는 현대어로 ‘밤에’로 ‘익’가 현대어로 ‘에’라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함을 알 수 있어. 즉, ‘바빅’에서 ‘익’는 관형격조사가 아니라 부사격조사야. 그러므로 이 두 예시를 통해서는 중세의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 명사의 특징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알 수 없어.

**[오답풀이]**

㉑을 살펴보자. ㉑의 ‘이제 엇더흔고’는 ‘이제 어떠한가?’로 의문사 ‘엇더’가 있고, 대답이 해당 의문사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 설명 의문문이야. 중세 국어에서는 설명의문문을 표현할 때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고’형으로 나왔어. ㉑에서도 의문형 종결 어미가 ‘고’로 끝나며 이를 확인할 수 있지. ㉑의 ‘어머니를 아라보리로소니잇가’는 의문사가 없고 대답이 ‘예/아니오’로 나오는 판정의문문이야. 중세 국어에서는 판정의문문을 표현할 때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아’형으로 나왔어. ㉑에서도 의문형 종결어미가 ‘가’로 끝나며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이에 이 두 예시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종결 어미가 다르게 쓰였음을 알 수 있지.

㉓을 살펴보자. ㉓에서는 ‘노퍽’라는 체언과 ‘너빅’라는 체언을 ‘와’라는 접속조사가 이어주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체언 ‘너빅’ 뒤에도 접속조사 ‘와’가 있어. ‘너빅왜’를 분석하면 ‘너빅(체언) + 와(접속조사) + | (주격조사)’거든. 즉 중세국어에서는 이어지는 체언들의 마지막 체언 뒤에도 접속 조사가 붙고, 그 뒤에 격조사가 붙음을 알 수 있어.

㉕을 살펴보자. ㉕의 ‘뫼해셔’를 분석하면 ‘뫼ㅎ + 애셔’야. 중세 국어에는 체언 뒤에 ‘ㅎ’가 붙어있는 ‘ㅎ 중성 체언’이 있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어.

㉗을 살펴보자. ㉗의 ‘어머니를 아라보리로소니잇가’는 현대어로 ‘어머님을 알아보겠습니까?’로 화자가 자신의 말을 듣는 청자, 즉 상대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때 현대국어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종결어미 ‘-니까’로 상대를 높이고 있어.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잇-’이라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가 있어. 그리고 이는 ㉗의 예시에 나타나고 있어.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소설 [27~30번 지문] [윤홍길, '완장']

"그리잖아도 벌이 한 개월이라서 서완단 천인데, 다칠맛게 녀름을 만나서 다행이다. 벌을 한 개 벌이나 두 개 벌이나 이 몸은 어찌되 이탄사판이꺼"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301p) #사용설명서(300p)

[작품 '한 눈에 보기']

[전체 줄거리]				
동네 유지인 최 사장은 이곡리의 널금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들고, 그 관리를 동네 건달인 종술에게 맡긴다. <b>[EBS 수록 부록]</b> 종술은 적은 급료에도 완장을 차게 해 준다는 말에 관리인을 맡는다. 종술은 완장의 힘에 도취되어 저수지를 오가는 사람들을 억박지르고,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한다. <b>[한수 수록 부록]</b> 급기야 자신을 고용한 사장 일행에게도 행패를 부린 종술은 결국 관리인 자리에서 해고된다. 해고된 뒤에도 아랑곳 않고 저수지 지키는 일을 하던 종술은 가뭄 해소책으로 저수지의 물을 빼려는 수리 조합 직원과 경찰과도 부딪치게 되고, 결국 자신을 좋아하던 술집 작부 부월의 충고를 들어, 완장을 저수지에 버리고 타지로 떠난다.				
주제	권력의 속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작품 구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b>[EBS 수록부록]</b> 종술은 완장을 차게 해준다는 말에 적은 급료에도 저수지 관리원을 맡음.	종술은 완장의 힘에 도취되어 저수지를 오가는 사람들을 억박지름.	자신을 고용한 사장일행에게 행패를 부려 관리원 자리에서 해고됨.	해고된 뒤에도 저수지를 지키던 종술은 수리 조합 직원과 경찰과도 부딪침.	자신을 좋아하던 부월의 충고를 받아들여 완장을 벗어던지고 저수지를 떠남.
[tip] 등장 인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최사장</b> : 본래 농사꾼이었다가 땅투기로 졸부가 되어 성공한 기업가로 변신한 인물. 종술에게 저수지 관리를 일임한다.</li> <li>• <b>임종술</b> : 권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나 또 그 권력을 강하게 욕망하는 인물이다. 저수지 관리인으로 취임한 동네 건달이다. 그의 권력행사는 원시적이고 폭력적이며 '완장'의 위력을 믿고 사람들에게 군림한다. 권력에 도취된 종술은 이윽고 자신을 고용한 사장에게까지 '완장의 위력'을 행사하려다 자멸한다.</li> <li>• <b>부월이</b> : 종술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술집 작부. 완장의 권력도 부월이에게는 전혀 위력을 발하지 못한다.</li> <li>• <b>윤암댁</b> : 임종술의 어머니. 해방 전 종술의 아버지가 권력으로 인해 자멸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본 이로서, 종술이가 '완장'을 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 한다.</li> <li>• <b>김준환</b> :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도둑남시를 하는 인물. 종술은 이 모습을 보고 지키기 위해선 뭐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심화된다.</li> </ul>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완장」의 주인공은 저수지 감시원으로 고용된 뒤, **감시원의 표식에 불과한 자신의 완장을 강력한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인물**이다. 완장을 찬 주인공은 망상에 사로잡혀 저수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 여기며, 저수지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핍박한다**. 결국 자신을 고용한 인물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다 저수지 감시원의 지위를 잃고 만다. 작가는 이러한 주인공을 통해 **권력의 허상을 파헤치는 한편, 권력자들의 횡포가 만연했던 당대의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작’은 아니다. 그러나 **사건**에서는 동종이 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벌금 저수지 사용권을 얻은 최 사장은, 범죄 전력이 있는 종술에게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를 단속하는 일을 맡기고, 감시원임을 나타내는 완장을 차도록 한다.

이번에는 손전등을 붓처럼 사용해서 저수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하나의 지도를 그려 보았다. 그 자신의 관할 구역을 나타내는 지도였다. 그것은 작은 왕국이었다.

내 땅이다!

그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다.

“내 땅이다!”

마음의 외침만으로는 아무래도 성에 차지 않아 그는 이번에는 실제로 입 밖에 소리 내어 다시 외쳤다. 엄연한 저수지의 물을 가리켜 땅이라고 외치자 그것은 명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참말로 땅덩어리로 둔갑해 버렸다.

**㉮ 저수지와 영토**

저수지의 물이 땅으로 둔갑했다는 말은 당연히 실제로 물이 땅으로 변했다는 말이 아니라 **저수지를 본인의 영토, 곧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종술의 인식**을 표현한 말이다. 종술은 저수지를 영토라고 표현하며 ‘지배’에 대한 욕구를 덧입히면서 권력에 대한 인식을 위험한 방향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로서는 난생처음 가져 보는 땅이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체험인가를 그는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다. 뜬구름을 잡겠다고 어려서부터 객지로만 떠돌며 보낸 지난 세월의 덧없음이 불현듯 그의 가슴을 때렸다.

**이제는 땅을 얻었다. 자기 땅이었다. 임종술 바로 그의 땅이 틀림없다는 증거로 그는 왼팔에 완장을 차고 있었다.** 바로 그 완장을 통해서 그는 지도에 그려진 광활한 땅덩어리 전체가 깔축없는\* 자기의 소유물임을 알뜰뜰하게 확인하고 있었다.

**㉮ 완장을 갈망하는 이유**

- ① “재박각 색깔 다르고 글자도 다른 그 습관 완장들에 관한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 ② “그는 우연히 두어나온 완장이란 말에 놀라움도 민망한 반응을 보이는 종술의 허물을 간파하고는 주만 눈이 곳간 밖에 귀를 뚫듯 거를 집중적으로 공경하며 **마음먹었다.**”

① 종술이 완장을 갈망하게 된 계기는 과거 권력에 의한 상처에 있다. 과거 다양한 직업을 가지며 삶을 전전했던 종술을 막은 것은 늘 ‘권력’이었다. 대항할 수 없는 힘 앞에 늘 쫓기기만 했던 종술에게 권력은 떨칠 수 없는 한이었던 것이다.

② 그러나 인용한 ①을 보면 알 수 있듯, 그 권력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한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종



술에게 선망의 대상자 꿈이 되어버렸다. 즉 권력을 통해 억압받음으로써 권력을 통해 억압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갈망한 것이다. 이 권력을 응집하는 소재가 곧 작품에서 '완장'이다.

- ③ 급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반응이 없었던 종술이 ㉠처럼 '권력'에는 반응을 보였던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종술은 단돈 오만 원이라는 적은 월급에도 저수지 감시직을 수행한다.

**[중략 줄거리]** 어느 날, 최 사장은 사람들을 데리고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온다.

“자아, 위선 천막으로 가서 옷부터 갈어입고 증심에 끓여 먹을 매운탕감이나 낚기로 하지.”

최 사장의 제안에 일행은 모두 찬성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마누라한테 사업상의 출타를 가장하느라고 그들은 하나같이 낚시꾼의 복장을 갖추지 못한 채로 물가에 왔던 것이다.

“잠깐만!”

그러나 최 사장 일행은 난데없는 고함 소리로 말미암아 잠시 물문\*에서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물건들은 도로 차 속에다 집어넣으시오!”

다름 아닌 감시원이었다. 최 사장은 각자 자기 주인의 낚시도구를 어깨에 멘 채 대봇독에 대기 중인 운전기 사들의 앞길을 떠억 막아서는 완장의 사내를 볼 수가 있었다. 너무도 어안이 병병해서 최 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개개일자로\* 말문이 막혀 있는 사이에 당돌하기 짝이 없는 그 감시원은 매우 결연한 동작으로 물문 쪽을 향했다.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벌금 저수지에서는 무단 어로 행위가 공유.....”

그 대목에서 종술은 영락없이 또 침을 꿀꺽 삼켰다.

**“공유 수면 관리법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요!”**

아까부터 아니꼬와 죽겠다는 표정으로 물문에서 벌어지는 최 사장 일행의 덜된 수작을 내내 주시하고 있던 종술은 최 사장의 매운탕 운운을 계기로 마침내 자기가 뛰어든 구실을 붙잡았던 것이다.

“이놈이 시방 뒤질라고 환장을 했나,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따우 말버릇을!”

그제야 뒤늦게 맑은 정신이 든 익삼 씨가 얼굴색을 푸르락붉으락거리면서 팔소매를 걷어붙이는 시늉을 했다.

“어르신네들 앞에서 그놈 참 농담도 재롱 삼어서 잘도 허누만.”

말을 마치기 무섭게 최 사장은 시동이 걸린 경운기의 엔진과도 같이 툇툇툇 하고 요란스런 웃음을 터뜨렸다. 오만불손하고 무례 방자한 감시원의 소행머리를 일단 농담으로 돌림으로써 갑자기 난처한 지경에 빠진 분위기를 적당히 농쳐 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는 위험한 분위기를 충분히 직감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닙니다요, 대장부 나이 삼십에 지가 아무리 험 짓이 없기로 재롱을 떨겠습니까요.”

일판이 참으로 묘하게 꼬여 가는 중이었다.

“종술이 너 이놈, 이 싸러죄일 놈!”

호통과 동시에 날새게 따귀를 올려붙이려는 익삼 씨의 팔을 짹싸게 낚아채어 종술은 확 비틀어 버렸다. 믿었던 조카마저 간단히 꺾이는 걸 보고 최 사장은 더욱 낙담했다.

“어허, 이것이야말로 봉육이구만, 봉육이여.”

조 사장이 돋보기 너머에서 눈을 꿈벅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뭐가 저런 게 다 있어!”

김 언니가 입속으로 쯤알거리는 소리였다. 그때까지 분을 삭이느라고 가쁜 숨만 헐떡이고 있던 건재상 흥 사장이 냅다 고함을 질렀다.

“야 이놈들아, 손은 뒀다가 어따 쓸라고 멍청허니 귀경들만 허냐? 갯값은 내가 물어 줄 작정이니까 어서 저 고연 놈을 태질\*치거라!”

그러자 운전기사 셋이 용기백배하여 못매를 때릴 준비를 하고 종술한테 덤벼려 했다. 하지만 종술은 물러서 긴커녕 오히려 그들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면서 어금니를 빠드득 갈았다.

“그러잖아도 별이 한 개뿐이라서 서운하던 참인데, 마침맞게 니놈들을 만나서 다행이다. 별을 한 개 붙이나 두 개 붙이나 이 몸은 어찌피 이판사판이니깐 **우리 어디 기차게 한번 맞장 떠 보드라고!**”

운전기사들은 대번에 낫빛이 헬썩해졌다. 그들이 꼬리를 사리는 걸 보고 종술은 여유 있는 몸놀림으로 물문 쪽을 향했다.

#### [tip] 종술의 권력

- ① 종술의 권력은 얼핏 보면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정당한 법인 '공유 수면 관리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② 그러나 그가 바로 위에서 선뜻 싸움을 벌이려는 태도를 살펴보자. 그는 그의 완력에 기대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 ③ 그는 권력을 권력 그 이상의 목적이나 이상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너 그것 안 들고 감시원 할 수 없었냐?”

“에이 참, 엄니도! 엄니는 동계서 사슴대접 조개 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여정 못마땅하냐?”

“똥이끼! 낡은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 ④ 종술의 아버지는 종술과 다르게 원래 착실한 가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완장을 두른 일본 헌병에게 팔을 잃었다. 종술의 아버지는 자신의 팔을 앗아간 헌병과 같은 권력을 갈망했고, 가지게 됐지만, 그는 그가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렇게 폭력적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종술의 아버지는 결국 사람들에게 잡혀 죽게 되면서 자멸한다.
- ⑤ 성격이 서로 달랐던 두 인물이 '권력'을 갖으며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은 '권력'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며 권력의 속성에 이미 폭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 윤홍길, 「완장」 -

\* 깔축없는: 조금도 축나거나 버릴 것이 없는.

\* 물문: 저수지나 댐 등의 물의 흐름을 막기 위해 설치한 문.

\* 개개일자로: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 태질: 세계 메어치거나 내던짐.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재팬'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b>[포인트1] 표현상의 특징</b>													
「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드러냄.</li> <li>• 해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을 풍자함.</li> <li>•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냄.</li> </ul>												
<b>[포인트2] '완장'의 상징성</b>													
「완장」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0%;">↑</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0%;">종술</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완장에 의해 단속당하고 쫓겨 다니던 기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5%;">권력의 힘과 폭력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운암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남편이 완장의 힘을 믿고 권력을 휘두르다 사람들에게 잡혀 죽은 기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력의 허구성</td> </tr> </table>	↑	종술	⇒	완장에 의해 단속당하고 쫓겨 다니던 기억	⇒	권력의 힘과 폭력성	↓	운암댁	⇒	남편이 완장의 힘을 믿고 권력을 휘두르다 사람들에게 잡혀 죽은 기억	⇒	권력의 허구성
↑	종술	⇒	완장에 의해 단속당하고 쫓겨 다니던 기억	⇒	권력의 힘과 폭력성								
↓	운암댁	⇒	남편이 완장의 힘을 믿고 권력을 휘두르다 사람들에게 잡혀 죽은 기억	⇒	권력의 허구성								
EBS 핵심 문제													
<b>&lt;보기&gt;</b>	1971년 미국의 스탠퍼드대 짐바르도 교수는 '모의 교도소 실험'을 하였다. 짐바르도 교수는 대학의 건물 지하에 실제 교도소와 유사한 공간을 만든 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원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무작위로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로 분류했다. 그런데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에 따라 진짜 수감자와 교도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교도관이 된 참여자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이 행사하고 있는 통제와 권력을 즐기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b>발문</b>	<b>&lt;보기&gt;를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b>												
<b>문제 선지</b>	① 종술이 저수지 감시원이 되지 않는다면 친절하고 유순한 성품을 유지하며 살게 되겠군. ② 종술이 완장을 차게 된다면 그가 과거에 당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억압하는 존재가 되겠군. ③ 최 사장이 종술에게 저수지 감시원을 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그와 권력을 나누기 위한 것이겠군. ④ 종술이 과거 인연을 맺어 온 완장에 대한 기억은 자신이 통제와 권력을 행사했던 일과 관련된 것이겠군. ⑤ 종술이 처음에 저수지 감시원을 거부한 이유는 통제와 권력을 위해 필요한 공격적인 행동을 제한했기 때문이겠군.												
<b>정답 해설</b>	② <보기>의 실험 내용을 보면, 교도관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역할에 충실하게 통제와 권력을 즐기며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 실험에 근거해 볼 때, 완장이라는 권력을 부여받은 종술이 그 권력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억압하는 존재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하기] EBS 'Q & A'													
<b>Q.</b>	<b>'모의 교도소 실험'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b>												
<b>A.</b>	'모의 교도소 실험'은 1971년 미국 스탠퍼드대 짐바르도 교수가 한 실험을 말합니다. 실험 내용은 교도소와 유사한 공간에서 지원자들을 무작위로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로 분류하고, 시험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게 합니다. 실험 결과, 특히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통제와 권력을 즐기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개인의 성격은 권위와 제도적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산문 [43~45번 지문] [작자 미상, '흥보가(신재효본)']

"노비는 영웅이나 재주를 사하며 그 아우를 죽였으니 나 같은 초야 뉘가 우애제정을 알겠느냐."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140) #EBS 사용설명서(p137)

[작품 '한 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정도로 개괄적"

[전체 줄거리]				
<p>욕심이 많고 심성이 고약한 형 놀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독차지하고 심성이 착한 동생 흥보를 내쫓는다. 흥보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매품팔이에 나서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느 날 흥보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도와주게 되고, 그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는다. 흥보는 박씨가 자라 열린 박 속에서 나온 재화와 보물로 부자가 되는데, 놀보는 이 소식을 듣고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준다. 놀부가 고쳐 준 제비 역시 놀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는데, 그 박씨에서 열린 박에서는 노승과 상여꾼, 초라니 패 등이 나온다. 이로 인해 패가망신한 놀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며, 형제는 화목하게 살게 된다.</p>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p><b>[한교평 수록]</b></p> <p>놀보가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흥보를 내쫓음.</p>	<p><b>[EBS 수록]</b></p> <p>놀보에게 곡식을 빌리러 간 흥보는 놀보 부인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고, 매품을 팔러 가지만 실패함.</p>	<p>흥보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하고, 제비가 보은으로 박씨를 물어다 줌.</p>	<p>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흥보가 부자가 됨. 이를 따라한 놀보는 벌을 받고 패가 망신함.</p>	<p>흥보는 놀보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놀보가 개과천선하여 형제가 화목하게 지냄.</p>
주제	권선징악과 형제간 우애의 중요성, 조선 후기의 부조리한 사회상 고발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생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p>조선 시대에는 남녀 균분 상속제에서 장자에게 재산 분할의 권한을 주는 장자 중심 상속제로 변모하였다. 장자는 차자(次子)에게 자립할 수 있는 규모의 재산을 주어 분가를 시키거나, 함께 살면서 동생들을 부모처럼 돌보기도 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장자 중심 상속제는 형제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덕목이 우애였다. 형을 극진히 위하는 착한 흥보가 복을 받고, 매정하고 인색한 놀보가 벌을 받는 「흥보가」에는 이러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p>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재가 불명령이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들이 될 수 있다."

"홍보야 네 듣거라, 사람이라 하는 것이 ❶ 믿는 데가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너도 나이 장성하여 계집자식이 있는 놈이 사람 생애 어려운 줄은 조금도 모르고서 ❶ 나 하나만 바라보고 놀고먹는 거동 보기 싫어 못 하겠다. ❷ 부모의 세간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인데, 하물며 ❸ 이 세간은 나 혼자 장만했으니 네게는 부당이라. 네 처자를 데리고서 속거천리(速去千里) 떠나거라. ❹ 만일 지체하여서는 살육지환(殺戮之患)이 날 것이니 어서 급히 나가거라."

#### [tip] 고전, 발화(주장-근거)

- ① 주지하듯 고전의 발화가 길어질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하지 말고 **빠르게 발화의 목적, 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속속 넘기고 읽더라도 **'급히 나가거라'와 같은 발화자의 주장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 ② 대략적으로 발화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파악이 됐다면 근거를 확인하자. 다시 말하지만 근거 내용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근거의 내용은 당연히 주장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할 테니까.**
- ③ 그러나 내용, 곧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읽으면서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가볍게 **번호를 쓰든, 다른 표시를 하든, 어쨌든 최소한 근거가 여러 개라는 정도는 인지**하자.
- ④ 최종적으로 '놀보가 홍보에게 나가라고 하는 이유들' 정도로 해당 부분을 인지하며 이후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 부분을 봐야겠다'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수험생이 해야 하는 최저선이라 보면 된다.

가련한 홍보 신세 지성으로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님 전에 비나이다. 형제는 일신이라 한 조각을 베면 둘 다 병신 될 것이니 외어기모(外禦其侮)\*를 어이하리. 동생 신세 고사하고 젊은 아내 어린 자식 뉘 집에 의탁하여 무엇 먹여 살리리까. 장공예(張公藝)는 어떤 사람이고 하니 구세(九世) 동거하였는데 아우 하나 있는 것을 나가라 하나이까. 척령(鶴齡)은 짐승이나 금란지의(金蘭之誼)를 알았고, 상체(常棣)는 꽃이로되 담락지정(湛樂之情)을 품었으니\* 오륜지의를 생각하여 십분 통촉하옵소서."

놀보가 분이 상투 끝까지 치밀어 그런 야단이 없구나.

"아버지 계실 적에 나는 생판 일만 시키고서 작은아들이 사랑웁다 글공부만 시키더니 너 매우 유식하다. 당 태종은 성주로되 천하를 다투어서 그 동생을 죽였으며 조비(曹丕)는 영웅이나 재조를 시기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나 같은 초야 농부가 우애지정(友愛之情)을 알것느냐."

구박 출문 쫓아내니 가련하다 홍보 신세 다시 입을 열지 못하고서 빈손으로 쫓겨나니 광대한 이 천지에 무가객(無家客)이 되었구나.

#### (중략)

"형님 댁에 건너가서 애곡히 사정하여 돈이 되나 쌀이 되나 주시면 좋거니와 어려운 그 성정에 만일 아니 주시웁고 호령만 하시오면 근래 같은 세상인심에 형님이 덕을 잃게 될 터이니 안 가는 수가 옳으이."

"주시고 안 주시기 하늘에 계시오니 청하다가 못 되면 한이나 없을 테니 수인사(修人事) 대천명(待天命)에 길을 두고 산으로 갈까 되든지 안 되든지 허사 삼아 가 보시오."

홍보가 아내 말을 듣고 하릴없어 형의 집에 건너갈 제, 의관을 한참 차려 모자 터진 헌 갓에다 ...(중략)... 구멍 뚫린 나막신을 두 발에 잘잘 끌고 뚝 얻어 올 걸로 큼직한 오쟁이를 평양 가는 어떤 이 모양으로 관뺨 위에 짚어지고 벌벌 떨며 지나갈 제, 저 혼자 혀를 차며,

"아무리 생각하나 되리란 말 아니 난다. 모진 목숨 아니 죽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형의 문전에 당도하니 그새 성세(聲勢) 더 늘어서 가사(家舍)가 장히 웅장하다. 삼십여 칸 줄행랑을 일자로 지

었는데 한가운데 솟을대문 표연히 날아갈 듯 ...(중략)... 그중에 늙은 종은 흥보를 아는구나. 깜짝 놀라 절을 하며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서방님 어디 가서 저 꼴이 웬일이요. 문지기 방에 들어앉아 언 몸이나 녹이옵시다.”

방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붙여 주며,

“서방님이 저리될 제 아씨야 오죽하며 그 새에 아기는 몇 분이나 더 낳으시고 어찌하여 저 꼴이요. 서방님이 나가실 제 우리들 공론한 말이 군자 같은 그 심덕에 어디 가면 못 살것나 암 데 가도 부자 되지 그럴 줄만 알았더니 세상이 공도(公道)\* 없소.”

끌끌 혀를 차며 화로의 불을 뒤져 가까이 놓아 주니 흥보가 불 쪼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맺힌 소리로,

“복 없으면 할 수 없네. 아들은 스물다섯, 아씨야 말할 게 있다. 나 차리고 온 의복은 게다 대면 혼삿길. 이 식구 스물일곱 톱 죽게 되었기에 형님 전에 고간하여 얻어 가지 왔네마는 문안 일항 하옵시고 성정 조금 풀리셨나?”

“문안이사 그 앞에 가 무슨 병이 얼씬하며 좀체 귀신이 꿈쩍할까. 일생 태평하시옵고, 성정 말씀이야 서방님 계실 제보다 장리(長利)나 더 독하오\*. 두말씀할 것 있소. 이번 제사 때에 음식 장만 아니하고 대전(代錢)으로\* 놓았다가 도로 쏘아 내옵는데 지난달 대감 제사에 놓았던 돈 한 푼이 제상 밑에 빠졌던지 몇 사람이 죽을 뻔, 이번은 비슷한 일이 또 생겨 날돈으로 아니 놓고 께미채 놓았습죠.”

흥보가 방에 편안히 담배 먹고 불 쪼니 몸이 조금 녹았다가 이 말을 들어 보니 등골이 썩썩 찬물을 끼얹고 가슴이 두근두근 쥐뭇이 내려진 듯하고 머리끝이 콧끝하여 하늘로 치솟은 듯 온몸을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저기 들어가지 말고 바로 가는 수가 옳지. 이럴 줄 아는 고로 아예 아니 오겠더니 아씨에 못 견디어 부득이 왔네그려.”

그 종이 하는 말이,

“이 추위에 저 꼴 하고 예까지 왔습다가 못 얻으면 그만이지 무슨 탈이 있으리까. 어서 들어가 보시오.”

- 작자 미상, 「흥보가」(신재효본) -

\* 외어기모: 형제가 다투어도 밖에서 모멸을 당하면 함께 막음.

\* 상체는~품었으니: 『시경』에 나오는 말. 새나 꽃도 우애가 있음.

\* 공도: 세상의 공평한 도리.

\* 장리나 더 독하오: 꾸어 준 것의 절반을 이자로 받는 장리보다 성격이 더 악독하다는 뜻.

\* 대전으로: 음식을 장만할 돈으로.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를 반영한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p>「박타령」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로, 가난하지만 착한 심성 덕분에 부자가 되는 동생 '흥보'와 부자이지만 욕심이 많고 나쁜 심성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 형 '놀보'의 모습을 등장 인물의 익살스러운 재담과 해학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형제간 우애의 중요성과 흥보가 제비를 도와준 후 얻은 박에서 온갖 비단과 보물이 나온다는 설정을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를 전달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몰락하는 양반과 자본을 토대로 성장하는 서민층의 등장, 빈부의 격차 등과 같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p>

**EBS 사용설명서, 「이것만은 꼭!」**

**[포인트1] 작품에 반영된 당대 사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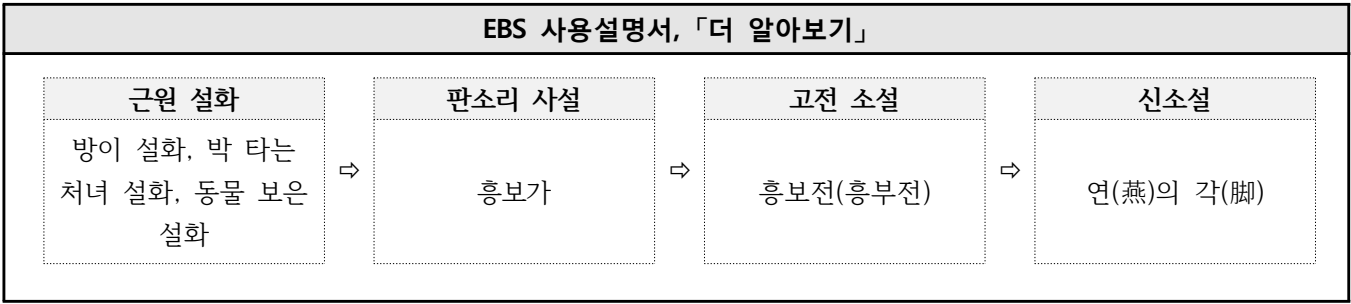
표현	당대 사회상
신분 계층의 등장으로 봉건적인 신분 질서의 해체가 가속화 됨.	‘내가 아무리 궁핍을 걱정하는 남자가 되었을망정 반남 박가 양반인데 호방을 보고 하대를 하나 존대를 하나?’
화폐의 위력이 커져 사회의 부조리가 심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골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 그 품 하나 팔아 보오’</li> <li>·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 생살지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 붙은 돈.’</li> </ul>
악화되는 생활 환경으로 인해 민중들의 삶이 힘겨워짐.	‘박 생원 대신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곤장 열 대 맞고 돈 서른 냥 받아 가지고 벌써 떠나갔소.’

**[포인트2] 서술상의 특징**

- 3·4조, 4·4조의 운문과 산문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과장과 해학이 두드러짐.
- 일상적 구어와 현재형 시제를 통해 현장감을 부여함.

**[포인트3] 판소리 사설의 특징**

	개념	관련 장면	기능
창	창자가 운율을 부여하여 노래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 및 평가하는 장면</li> <li>· 인물의 정서와 관련된 장면</li> </ul>	청중으로 하여금 인물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거나 체험하게 함. → <b>극적 긴장 유발</b>
아니리	창을 하는 중간 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 간의 대화를 제시하는 장면</li> <li>· 사건 및 인물의 갈등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장면.</li> </ul>	작품 속 세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 청중이 작중 인물과 사건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함. → <b>극적 이완 유발</b>





**[한끼 볼 지문]** "비교하기, <같은 작품, 다른 부분>, 평가원 - '2009학년도 9월 「박흥보전」"

흥보 아내 그 말 듣고,

"애고, 이게 웬 말인가? 그런대도 내가 알고 저런대도 내가 압네."

섯다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 광광 발 구르며 하는 말이,

㉠"시아자씨도 야속하다. 재물만 생각하고 형제 윤기 저버리니 이런 법도 또 있는가. 무거불측 목공이도 이에서 더할손가. 무궁무진 나의 설움 생각하니 측량없다. 애고애고, 내 일이야."

흥보 듣고 비감하여,

㉡"이 울음 그만 우소. 속이 매워 못 들겠네. 우리가 곤궁함은 모두 장부의 허물이라. 부끄럽기 측량없네. 우리도 설마 때를 만나 귀히 될 제 있을 테니 설워 말고 살아 보세."

이날부터 흥보 품을 팔 제, 상하 평전 지심 매기, 전세 대동 방아 찧기, 북경 장사 편지 전하기, 상부군의 대상 메고, 이집 저집 내려 엮기, 낡은 집에 토담 쌓고, 새집 짓고 왕토하기, 한 말 두 말 마질하고, 여각 주인 말 짐 신기, 오 푼 받고 마철 걸고, 두 푼 받고 쥐구멍 막기, 닷 냥 받고 송장 치기, 날로 벌고 달로 벌어 아무리 극력으로 벌어도 여러 식구 살릴 일이 전혀 없어 곤궁으로 지내더니, 하루는 흥보가,

"내 갓망건 두루마기 내오소. 오늘날은 읍내를 잠깐 들어갈 수밖에는 수가 없네."

"읍내는 무엇하러 가랴시오?"

"환곡(還穀) 호방(戶房)과 집안끼리 아는 사이니 쌀섬이나 타다 먹세."

"그것 무슨 말씀이오? 환곡미는 국곡(國穀)인데, 먹을 때는 좋다 하고 값을 때는 어찌 값게?"

㉢"여보소, 그 말 마소. 값다 값다 못 값으면 몽둥이 서넛 맞기로 관계있다. 형님께로 떠넘기세."

#### (중략)

"먹고 노니 좋소마는 그 돈이 웬 돈이오?"

"자네 이 말을 천기누설 하지 마소. 읍내를 가서 환곡 호방을 보았더니 나를 보고, '병영으로 매품 팔러 가려오?' 하기에, 돈 삼십 냥 받고 별도로 마삿 닷 냥까지 받아 왔네."

흥보 아내 이 말 듣고,

㉣"애고, 이게 웬 말이오.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옵나니, 모진 목숨 사는 대로 살 것이지 남의 죄로 매 맞을까. 마오 마오, 가지 마오."

흥보 하는 말이,

"어허, 그거 방정이로고. 볼기 놀려 쓸 데 있나."

"그러하면 볼기가 다 구실이 있소?"

[A] "내 이를 테니 들어보소. 삼정승 하였으니 평교자에 앉아 볼까. 육조 판서 하였으니 초헌 위에 앉아 볼까. 양국대장 하였으니 장대(將臺) 위에 앉아 볼까. 팔도 방백 하였으니 선화당에 앉아 볼까. 각읍 수령 하였으니 동헌 좌기 하여볼까. 좌수별감 하였으니 행사당에 앉아 볼까. 이방 호장 하였으니 각청 수석 앉아 볼까. 장안 일색 명기 되어 승교 위에 앉아 볼까. 만금 거래 상고 되어 부담마에 앉아 볼까. 이내 몸 궁곤 한데 매품이나 팔아먹지 볼기 놀려 쓸 데 있나. 자네 내 말 들어 보소. 그 돈 삼십 냥 벌어들여 착한 사람 맡겨 두면 이리저리 늘리어서 큰 아들은 장가들이고 티끌 모아 태산으로 그러저러 살아 보세."

흥보 자식들이 이 말 듣고 벌 때 되듯 하더니만,

"허허 아버지. 그 돈 많이 받거들랑 풍안(風眼)\* 한 벌 사다 주오."

"이 자식, 풍안 무엇하려느냐?"

그놈 하는 말이,

"부자간이라도 속을 몰라주니 답답하지요. 이월 동풍 부는 때에 뒷간 출입 다니려면 못사람의 발길에 눈에 티가 들어 다닐 수 없어 그리하지요."

또 한 놈이 나왔더니,

- [B] “아부지, 나는 송아지 한 마리 사다 주오.”  
 흥보 좋아라고,  
 “기특한 내 아들이야. 장래 살림은 잘하겠구나. 송아지는 무엇 할래?”  
 “한 마리만 사다 주면 모닥불에 구워 먹게요.”  
 “어 그놈, 허망한 놈이로고. 저리 가거라.”

또 한 놈이 썩 나오며,

- “아부지, 나일랑은 양피 조끼에 통대모 장도(粧刀) 비단 꽃신 한 벌 사다 주오.”  
 “네 이 자식, 대모 장도 얻다 찰래?”  
 “찰 데 없으면 갈비 뚫어 차지요.”

흥보 아내 곁에 섰다 여러 자식들을 호통하여 물리치니, 흥보 하는 말이,

㉠ “요런 몫쓸 일도 있는가. 개암쪽 만한 불기쪽에 그새에 시장판을 벌였구나. 그만두어라. 많이 사다 주마.”

- 작자 미상, 「박흥보전」 -

\* 풍안: 바람과 티끌을 막으려고 쓰는 안경.

문제 1	윗글에 나타난 당대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문제 선지</p>	<p>① 부자라도 죄를 지으면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했다.                  ② 아이들이 신문물과 치장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③ 관가에서 부담 없이 곡식을 빌려 주는 제도가 있었다.                  ④ 황금만능 풍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널리 퍼져 있었다.                  ⑤ 노동을 통해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p>
<p>정답 해설</p>	<p>②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담긴 소설에서 당대의 사회상을 추론해내는 문제이다. 흥보가 매품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말을 듣자 아이들은 벌 떼처럼 모여들어 각자 자신의 소원을 말한다. 아이들은 흥보에게 ‘풍안(안경)’, ‘송아지’, ‘양피 조끼, 장도 비단 꽃신’ 등을 사달라고 말한다. 이로 볼 때, 아이들이 풍안과 양피 조끼 등의 신문물이나 치장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p>
<p>오답 풀이</p>	<p>① ‘남의 죄로 매’를 맞는 상황이 나오므로, 부자가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상은 이끌어내기 어렵다.                  ③ 흥보의 마누라는 나라의 곡식인 환곡미를 당장은 빌려 먹더라도 나중에 갚을 때 어떻게 갚겠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 없이 관가에서 곡식을 빌렸을 것이라는 추론은 하기 어렵다.                  ④ 돈을 벌기 위해 매품을 파는 상황은 황금만능 풍조에 대한 반감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⑤ 흥보가 놀보 집에 다녀온 후 그야말로 다양한 품을 팔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품을 팔게 되는 상황은 흥보가 노동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p>
문제 2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문제 선지</p>	<p>① 시선의 빠른 이동을 통하여 긴장을 조성한다.                  ②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중첩하여 리듬감을 살린다.                  ③ 신체 부위를 소재로 하여 해학적 효과를 자아낸다.                  ④ 실현되기 어려운 일들을 열거하여 궁한 신세를 드러낸다.</p>

	⑤ 관용 표현을 이용하여 주인공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b>정답 해설</b>	① [A]에서는 자신의 불기가 매를 맞고 돈을 버는 데라도 구실이 있다며,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불기'의 구실을 열거하고 있다. 홍보가 떠올리는 장면이 다양하다 하겠으나, 이것을 '빠른 시선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 홍보는 [A]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지, '긴장 조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b>오답 풀이</b>	② '~하니, ~해 볼까'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③ '불기'를 소재로 하여 해학적인 맛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삼정승', '양국대장', '각읍 수령' 등 자신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위를 상상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홍보 자신의 궁한 신세를 부각시키게 된다. 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b>문제 3</b>	<b>&lt;보기&gt;의 내용을 참조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
<b>&lt;보기&gt;</b>	판소리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얼핏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작품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말이나 행동에 여러 층위의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의 상황에 서로 다른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양상을 읽어내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문학성을 이해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b>문제 선지</b>	① ㉠: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린 시아주버니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함께 나타난다. ② ㉡: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과 가장 노릇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얽혀 있다. ③ ㉢: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걱정하는 마음과 형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④ ㉣: 남편이 매 맞으러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⑤ ㉤: 철없이 행동하는 자식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그들을 어떻게든 건사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함께 나타난다.
<b>정답 해설</b>	④ <보기>는 판소리계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말하고 있고, 답지들도 그에 따라 인물의 심리를 복합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의 경우에는 홍보 마누라가 '목숨' 즉 운명대로 살고 '남의 죄로 매 맞'는 일은 하지 말자는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편이 매 맞으러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드러나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수용하는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b>오답 풀이</b>	① '시아자씨도 야속하다'에는 '시아주버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드러나 있고, '나의 설움'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② '속이 매워 못 듣겠네'에는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이, '장부의 허물이라'에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③ '몽둥이 서넛' 맞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형님께로 떠넘기세'라 하여 형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요런 몸쓸 일'이라 하여, 아버지가 매를 맞으러 간다는데 자신의 바람만을 늘어놓는 자식들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많이 사다 주마'라 하여 자식들의 바람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아버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 과학[39~42번 지문][물질의 결합과 용해]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물은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고 모세관 현상을 보인다. 물의 이런 특성은 물 분자가 극성 분자이고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한다는 사실로 설명이 가능하다.

물 분자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된 분자로, 수소 원자들은 각각 한 쌍의 전자를 산소 원자와 공유하면서 결합되어 있다. 분자에서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댓값으로 나타낸 것을 전기 음성도라 하는데,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이로 인해 물 분자의 공유 전자쌍은 산소 원자 쪽에 치우쳐 있게 되고, 그 결과 산소 원자는 부분적 음전하를, 수소 원자는 부분적 양전하를 띤다. 이렇게 공유 전자쌍의 치우침으로 인해 분자가 극성을 띠게 되는 공유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 한다. 메테인 분자처럼 두 원자의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 중에도 그 모양이 대칭적이어서 극성이 상쇄된 무극성 분자도 있지만, 물 분자는 그 모양이 비대칭인 극성 분자이다. 보통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보다 크면 두 원자가 전자를 공유한다기보다는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이온화된 다음 결합하는 이온 결합을 하고, 0.5보다 작으면 공유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한편 물 분자의 산소 원자와 인접한 물 분자의 수소 원자는 반대 전하끼리 서로를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한다. 수소 원자가 관여된 이러한 분자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 한다.

용질이 용매와 고르게 섞이는 현상인 용해는 용매 분자와 용질 입자 간의 인력이 용매 분자 간의 인력 혹은 용질 입자 간의 인력보다 클 때 일어난다. 그리고 용매가 극성을 띤 때에는 극성을 띠는 물질만, 극성을 띠지 않을 때는 극성을 띠지 않는 물질만 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물은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나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만 녹일 수 있다. 가령 결정 구조로 된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은 물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해리되어 물에 고루 섞인다. 물 분자 간의 인력보다 물 분자의 양전하 부분과 염화 이온 간의 인력 및 물 분자의 음전하 부분과 나트륨 이온 간의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염화나트륨의 두 이온은 물 분자 하나로는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강한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여러 개의 물 분자가 하나의 이온에 달라붙어 동시에 끌어당기므로 각 이온들이 결정 구조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 단,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물에 녹을 때 분자 단위로 물에 섞인다.

좁은 유리관을 물속에 수직으로 넣으면 물이 관 속을 타고 오르는 모세관 현상도 물의 수소 결합과 관련된 현상이다. 유리의 주요 구성 물질인 이산화규소는 2개의 산소 원자와 1개의 규소 원자가 극성 공유 결합을 맺어 형성된 물질이지만 극성이 상쇄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물에 녹지 않는다. 다만 유리의 표면에서는 극성이 상쇄되지 않아 물 분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 규소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낮으므로, 이산화규소의 산소 원자는 상대적으로 물 분자의 산소보다 더 강한 음전하를 띤다. 화합물을 이룬 두 원자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두 원자는 더 강한 전하를 띠기 때문이다. 이는 물 분자의 수소 원자가 인접한 다른 물 분자의 산소 원자보다 이산화규소의 산소 원자와 더 잘 결합하게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 간에 작용하는 인력을 부착력이라 한다. 물의 모세관 현상은 이 부착력이 같은 물질인 물 분자 간의 인력인 응집력보다 크므로 유리관에 맞닿은 물 분자들이 관의 내벽에 달라붙어 위쪽으로 퍼지면서 응집력으로

물인 더 아래쪽의 물 분자들을 끌어 올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의 경우처럼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면 관 속의 액체 표면이 오목해진다. 반면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크면 관 속의 액체 높이가 관 밖의 액체 높이보다 낮아지면서 관 속의 액체 표면이 볼록해지는 모세관 현상이 나타난다.

###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물은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고 **모세관 현상**을 보인다. 물의 이런 특성은 물 분자가 **극성 분자**이고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한다는 사실로 설명이 가능하다.

####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첫 문단에서 중심 화제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현상 2개, 물 분자의 특성 2개가 제시되었지요. 어떻게 설명이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여기서 언급한 것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될 테니,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줍니다.
- ② 물과 관련된 현상
  - 1) 물질이 물에 녹음
  - 2) 모세관 현상
- ③ 물의 특성
  - 1) 물 분자 = 극성 분자
  - 2) 물 분자 = 수소 결합 가능

물 분자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된 분자로, 수소 원자들은 각각 한 쌍의 전자를 산소 원자와 공유하면서 결합되어 있다. 분자에서 원자가 **공유 전자쌍(C)**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댓값으로 나타낸 것을 **전기 음성도(C)**라 하는데,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이로 인해 물 분자의 공유 전자쌍은 산소 원자 쪽에 치우쳐 있게 되고, 그 결과 산소 원자는 부분적 음전하를, 수소 원자는 부분적 양전하를 띤다. 이렇게 공유 전자쌍의 치우침으로 인해 분자가 극성을 띠게 되는 공유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C)**이라 한다. 메테인 분자처럼 두 원자의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 중에도 그 모양이 대칭적이어서 극성이 상쇄된 무극성 분자(C)도 있지만, 물 분자는 그 모양이 비대칭인 극성 분자(C)이다. 보통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보다 크면 두 원자가 전자를 공유한다기보다는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이온화된 다음 결합하는 이온 결합을 하고, 0.5보다 작으면 공유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한편 물 분자의 산소 원자와 인접한 물 분자의 수소 원자는 반대 전하끼리 서로를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한다. 수소 원자가 관여된 이러한 분자 결합을 **수소 결합(C)**이라 한다.

####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낯선 개념들이 밀도있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끊어가면서 차분하게 읽어야 합니다. 급하게 읽으면 정말 안 읽히는 문단입니다.
- ② 물 분자의 구조는 이제 익숙하리라 믿는다.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의 결합. 수소 원자들은 각각 한 쌍의 전자를 산소 원자와 공유하면서 결합되어 있는데, 이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 ③ 전기 음성도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전기 음성도 : 산소 > 수소
- ④ 한 쪽에서 더 강하게 잡아당기니 쏠릴 수밖에 없겠지요. 공유 전자쌍은 더 강하게 잡아당기는 산소 원자 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전자 = 음전하라는 것, 이제는 다들 알지요?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설명을 해주니까요. 공유 전자쌍이 치우쳐져 있는 산소 원자는 음전하를, 수소 원자는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 ⑤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한 쪽으로 쏠린 상태로 결합하는 것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분자 중에서 극성이 상쇄되는 분자도 있습니다. 메테인 분자는 '모양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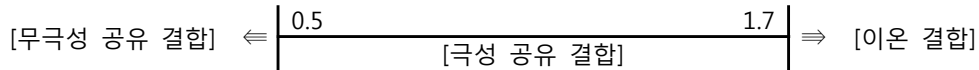
• 극성 공유 결합 → 극성 분자 (물 분자)

• 극성 공유 결합 + 대칭 모양 → 무극성 분자 (메테인 분자)

‘대칭 모양’에 대한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일종의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함정 선지로 출제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메테인 분자’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과 극성 분자를 일대일 관계로 놓을 수 없고, 이를 선지로 출제하게 되면 ‘극성 공유 결합=극성 분자’와 같이 정리 혹은 기억하고 간 학생들은 틀릴 수 있겠지요.

⑥ 다음 문장은 반데르발스 방정식 지문(2013학년도 수능)에서 했던 것처럼, 구간을 나눠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



⑦ 앞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결합의 양상이 달라진다면, ‘물 분자’에서 산소와 수소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얼마일까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0.5 이상 1.7 이하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물 분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⑧ 물 분자의 산소 원자는 그 분자 안의 수소 원자와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자의 수소 원자와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소 결합’은 물 분자들 사이의 결합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1) 분자A의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결합 = 극성 공유 결합

(2) 분자A의 산소 원자와 분자B의 수소 원자 결합 = 수소 결합

용질이 용매와 고르게 섞이는 현상인 **용해(C)**는 용매 분자와 용질 입자 간의 인력이 용매 분자 간의 인력 혹은 용질 입자 간의 인력보다 클 때 일어난다. 그리고 용매가 극성을 띠 때에는 극성을 띠는 물질만, 극성을 띠지 않을 때는 극성을 띠지 않는 물질만 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물은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나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만 녹일 수 있다. 가령 결정 구조로 된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C)**은 물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해리되어 물에 고루 섞인다. 물 분자 간의 인력보다 물 분자의 양전하 부분과 염화 이온 간의 인력 및 물 분자의 음전하 부분과 나트륨 이온 간의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염화나트륨**의 두 이온은 물 분자 하나로는 끌어낼 수 없을 만큼 강한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여러 개의 물 분자가 하나의 이온에 달라붙어 동시에 끌어당기므로 각 이온들이 결정 구조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 단,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물에 녹을 때 분자 단위로 물에 섞인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기억나나요? 1문단에서 ‘물과 관련된 현상’으로 제시된 것 첫 번째가 ‘녹는 것’, 즉 ‘용해’였지요. ‘용해’는 ‘용매’에 ‘용질’이 섞이는 현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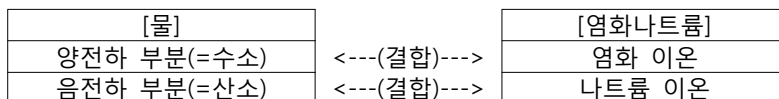
② 용해가 가능한 경우는 2가지입니다.

(1) 용매 분자-용질 입자 간 인력 > 용매 분자 간 인력

(2) 용매 분자-용질 입자 간 인력 > 용질 입자 간 인력

③ 극성 분자 용매 ⇔ 극성 분자 용질, 이온 결합 용질 용해 / 무극성 분자 용매 ⇔ 무극성 분자 용질 용해 한 가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네요.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 = 극성을 띠는 물질’

④ 다음에 나온 사례는 물(용매)에 염화나트륨(용질)이 용해되는 과정입니다. 지문 표현에는 ‘양전하 부분 / 음전하 부분’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읽어 봅시다.



⑤ 염화나트륨의 두 이온 사이의 인력은 물과 염화나트륨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 물 분자들이 함께 끌어당기기 때문에 각 이온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유리관을 물속에 수직으로 넣으면 물이 관 속을 타고 오르는 모세관 현상(C)도 물의 수소 결합과 관련된 현상이다. 유리의 주요 구성 물질인 이산화규소(C)는 2개의 산소 원자와 1개의 규소 원자가 극성 공유 결합을 맺어 형성된 물질이지만 극성이 상쇄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물에 녹지 않는다. 다만 유리의 표면에서는 극성이 상쇄되지 않아 물 분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 규소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낮으므로, 이산화규소의 산소 원자는 상대적으로 물 분자의 산소보다 더 강한 음전하를 띤다. 화합물을 이룬 두 원자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두 원자는 더 강한 전하를 띠기 때문이다. 이는 물 분자의 수소 원자가 인접한 다른 물 분자의 산소 원자보다 이산화규소의 산소 원자와 더 잘 결합하게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 간에 작용하는 인력을 부착력(C)이라 한다. 물의 모세관 현상은 이 부착력이 같은 물질인 물 분자 간의 인력인 응집력(C)보다 크므로 유리관에 맞닿은 물 분자들이 관의 내벽에 달라붙어 위쪽으로 퍼지면서 응집력으로 묶인 더 아래쪽의 물 분자들을 끌어 올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의 경우처럼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면 관 속의 액체 표면이 오목해진다. 반면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크면 관 속의 액체 높이가 관 밖의 액체 높이보다 낮아지면서 관 속의 액체 표면이 볼록해지는 모세관 현상이 나타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1문단에서 ‘물과 관련된 현상’으로 제시된 것 두 번째는 ‘모세관 현상’이었습니다. ‘용해’를 설명할 때는 ‘염화나트륨’을 사용했다면 ‘모세관 현상’을 설명할 때는 ‘이산화규소’를 사용합니다. ‘이산화규소’는 2개의 산소 원자와 1개의 규소 원자가 극성 공유 결합을 맺어 형성된 물질이지만 극성이 상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② 2문단에서 읽은 내용이지요. 극성이 상쇄되는 구조는 ‘대칭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칭 모양’을 이루는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앞문단에서 ‘극성 분자 용매 ⇨ 극성 분자 용질, 이온 결합 용질 용해’라고 했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 용질인 이산화규소는 극성 용매인 물에 녹지 않습니다.
- ③ 그런데 유리의 표면에서는 극성이 상쇄되지 않았다고 한네요? 그래서 유리의 표면은 물 분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 ④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면 독해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입니다.

[전기 음성도] : 규소 < 수소



[음전하 세기] : 이산화규소의 산소 원자 > 물의 산소 원자

‘~으므로’라는 어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연결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규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와 ‘두 분자의 산소 원자 사이에 음전하 세기 차이’는 어떤 연결 관계가 있을까요?

- ⑤ ‘이산화규소’와 ‘물’ 둘 다 산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해해봅시다. 산소의 전기 음성도를 10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규소의 전기 음성도를 3, 수소의 전기 음성도를 5로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물 분자에서 산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5, 이산화규소에서 산소와 규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7이 됩니다.

- ⑥ 그리고 분자 화합물을 이루는 두 원자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전하의 세기는 강해집니다. 따라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이산화규소 분자에서 산소의 음전하 세기가 강한 것입니다. 꽤 어렵지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⑦ 이산화규소에서 산소의 음전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산화규소의 산소 원자가 물의 산소 원자보다 물의 수소 원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건 또 왜?’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2문단 마지막 ‘정전기적 인력’에 관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 ⑧ 아무튼 이렇게 이산화규소의 산소 원자는 물의 수소 원자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이 둘이 결합하는 힘을 ‘부착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부착력과 응집력의 관계가 나오는데,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봅시다.

(1) 부착력 > 응집력 : 오목한 모양 / 관 속의 액체 높이 > 관 밖의 액체 높이

(2) 부착력 < 응집력 : 볼록한 모양 / 관 속의 액체 높이 < 관 밖의 액체 높이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물은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고 모세관 현상을 보인다. 물의 이런 특성은 물 분자가 극성 분자이고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한다는 사실로 설명이 가능하다.

물 분자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된 분자로, 수소 원자들은 각각 (한 쌍의 전자)를 산소 원자와 공유하면서 결합되어 있다. 분자에서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을 ㉠ 전기 음성도라 하는데,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이로 인해 물 분자의 공유 전자쌍은 산소 원자 쪽에 치우쳐 있게 되고, 그 결과 산소 원자는 부분적 음전하를, 수소 원자는 부분적 양전하를 띤다. 이렇게 공유 전자쌍의 치우침으로 인해 분자가 극성을 띠게 되는 공유 결합을 ㉡ 극성 공유 결합이라 한다. 메테인 분자처럼 두 원자의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 중에도 그 모양이 대칭적이어서 극성이 상쇄된 무극성 분자도 있지만, 물 분자는 그 모양이 비대칭인 극성 분자이다. 보통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보다 크면 두 원자가 전자를 공유한다기보다는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이온화된 다음 결합하는 이온 결합을 하고, 0.5보다 작으면 공유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한편 물 분자의 산소 원자와 인접한 물 분자의 수소 원자는 반대 전하끼리 서로를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한다. 수소 원자가 관여된 이러한 분자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 한다.

용질이 용매와 고르게 섞이는 현상인 용해는 용매 분자와 용질 입자 간의 인력이 용매 분자 간의 인력 혹은 용질 입자 간의 인력보다 클 때 일어난다. (그리고 용매가 극성을 띠지 않는 극성을 띠는 물질만, 극성을 띠지 않는 극성을 띠지 않는 물질만 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물은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나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만 녹일 수 있다.) 결정 구조로 된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은 물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해리되어 물에 고루 섞인다.) 물 분자 간의 인력보다 물 분자의 양전하 부분과 염화 이온 간의 인력 및 물 분자의 음전하 부분과 나트륨 이온 간의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염화나트륨의 두 이온은 물 분자 하나로는 끌어낼 수 없을 만큼 강한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여러 개의 물 분자가 하나의 이온에 달라붙어 동시에 끌어당기므로 각 이온들이 결정 구조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 단,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물에 녹을 때 분자 단위로 물에 섞인다.)

좁은 유리관을 물속에 수직으로 넣으면 물이 관 속을 타고 오르는 모세관 현상도 물의 수소 결합과 관련된 현상이다. 유리의 주요 구성 물질인 이산화규소는 2개의 산소 원자와 1개의 규소 원자가 극성 공유 결합을 맺어 형성된 물질이지만 (극성이 상쇄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물에 녹지 않는다. 다만 (유리의 표면에서는 극성이 상쇄되지 않아) 물 분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 규소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낮으므로, 이산화규소의 산소 원자는 상대적으로 물 분자의 산소보다 더 강한 음전하를 띤다. 화합물을 이룬 두 원자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두 원자는 더 강한 전하를 띠기 때문이다. 이는 물 분자의 수소 원자가 인접한 다른 물 분자의 산소 원자보다 이산화규소의

산소 원자와 더 잘 결합하게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 간에 작용하는 인력을 부착력이라 한다. (물의 모세관 현상은 이 부착력이 같은 물질인 (물 분자 간의 인력인 응집력)보다 크므로 유리관에 맞닿은 물 분자들이 관의 내벽에 달라붙어 위쪽으로 퍼지면서 응집력으로 묶인 더 아래쪽의 물 분자들을 끌어 올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의 경우처럼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면 관 속의 액체 표면이 오목해진다. 반면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크면 관 속의 액체 높이가 관 밖의 액체 높이보다 낮아지면서 관 속의 액체 표면이 볼록해지는 모세관 현상이 나타난다.

전기음성도 ↑ ← 끌어당기는 힘 ↑

→ 39-①

39-③

41-②

→ 41-⑤

→ 41-③

→ 39-②

39.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

- ① 모세관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 부착력(인력)
- ② 이산화규소가 물에 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극성이 상쇄되는 구조(대칭적)
- ③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이온 결합은 이온화 후 결합
- ④ 물 분자들이 서로 결합할 때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일까? ○ 응집력
- ⑤ 유리관의 표면에서 이산화규소의 극성이 상쇄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X → 이온 인접 X.

40. ㉠,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① 메테인 분자는 ㉠의 차이가 0.5보다 작은 두 원자가 결합한 것이다. X → 아니다. 메테인 분자는 극성공유결합을 한다.
- ② ㉠은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절댓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X → 정의에서 상대값이라고 함.
- ③ 분자 모양이 대칭적이면 공유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는 원자들의 결합도 ㉡이 될 수 있다. X → 대칭적이면 극성이 상쇄됨
- ④ 어떤 분자가 ㉡을 통해 결합한 두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분자가 꼭 극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 → 대칭 구조일 수 있음으로
- ⑤ 어떤 화합물을 이루는 두 원자의 ㉠의 차이가 없다면 두 원자는 전자쌍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이 불가능하다. X → 그런 내용 X. 그리고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0.5 이하이면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됨.

41. 밑글의 '염화나트륨'이 용해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① 염화 이온은 물 분자의 양전하 부분에 의해 끌어당겨진다. ○ → 지문 확인
- ② 염화나트륨을 용해하기 위해서는 물처럼 극성을 띠는 용매를 사용해야 한다. ○ → 지문 확인
- ③ 염화나트륨은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과 달리/이온 단위로 물에 용해된다. ○ → 나트륨 이온 & 염화 이온으로 & 쿨롱 물질은 분자 단위.
- ④ 물 분자의 수소 원자와 나트륨 이온 간에 작용하는 인력은 물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보다 강하다. X → 산소와 나트륨 이온 간에 인력 0. 수소는 염화이온을 끌어당긴다
- ⑤ 1개의 물 분자가 1개의 염화 이온을 당기는 힘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이온 결합을 끌어낼 만큼 강하지 않다. ○ → 지문 확인



42.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보 기>

○ 실험 물질의 특성

A는 수소 원자와 a, B는 수소 원자와 b, X는 산소 원자와 x가 결합된 화합물이다. a와 b의 전기 음성도는 모두 수소보다 높고 산소보다 낮으며, 원자 x의 전기 음성도는 산소보다 낮고 x와 산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1.7보다 작다.

○ 가상의 실험 결과

물질 A, B가 액체 X에 용해되는지 알아보는 실험과, 좁은 유리관을 액체 X를 담은 용기에 수직으로 넣는 실험을 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 1] A는 X에 녹았다.

[결과 2] B는 X에 녹지 않았다.

[결과 3] 액체 X는 관 속의 높이가 관 밖의 높이보다 낮아졌고 표면이 불록해졌다.

○ 학생의 추론: 용해의 조건이나 부착력과 응집력의 관계에 따라 판단하면, [가] 고 추론할 수 있어. (단, 분자 간 인력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극성을 띤 분자들 간에는 항상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한다고 가정함.)

- ① A가 X에 용해될 때 A와 X 간의 인력은 X와 X 간의 인력보다 크게 작용한다
② A는 극성을 띠는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a와 수소는 공유 결합을 한다
③ B는 극성을 띠지 않는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b와 수소는 이온 결합을 하지 않는다
④ b의 전기 음성도가 a의 전기 음성도보다 크다면, B의 분자는 극성이 상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⑤ X에 유리관을 수직으로 넣으면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크게 작용하므로, x의 전기 음성도는 규소의 전기 음성도보다 작다

전기 음성도 차이

Handwritten notes explaining electronegativity differences between elements and their effect on bond types and molecular polarity.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보야 네 듣거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믿는 데가 있으면 아무 일도 안된다. 너도 나이 장성하여 계집자식이 있는 놈이 사람 생애 어려운 줄은 조금도 모르고서 하나만 바라보고 놀고먹는 거동 보기 싫어 못 하겠다. 부모의 세간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인데, 하물며 이 세간은 나 혼자 장만했으니 네게는 부당이라. 네 처자를 데리고서 속거천리(速去千里) 떠나거라. 만일 지체하여서는 살육지환(殺戮之患)이 날 것이니 어서 급히 나가거라.”

[A]

가련한 홍보 신세 지성으로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님 전에 비나이다. 형제는 일신이라 한 조각을 베면 둘 다 병신 될 것이니 외어기모(外禦其侮)를 어이하리. 동생 신세 고사하고 젊은 아내 어린 자식 뉘 집에 의탁하여 무엇 먹여 살리리까. 장공예(張公藝)는 어떤 사람이고 하니 구세(九世) 동거하였는데 아우 하나 있는 것을 나가라 하나이까. 척령(鶴鶴)은 짐승이나 금란지(金蘭之誼)를 알았고, 상채(常棣)는 꽃이로되 담락지정(湛樂之情)을 품었으니 오륜지의를 생각하여 십분 통촉하옵소서.”

(중략)

“형님 댁에 건너가서 애공히 사정하여 돈이 되나 쌀이 되나 주시면 좋거니와 어려운 그 성정에 만일 아니 주시옵고 호령만 하시오면 근래 같은 세상인심에 형님이 덕을 잃게 될 터이니 안 가는 수가 옳으이.”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저 자 이승모, 최상훈  
펴 낸 곳 한국교육평가인증  
전 화 02-3401-8900  
홈페이지 [www.kydi.co.kr](http://www.kydi.co.kr)